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2843.29	코스닥	829.41
	(-22.80)		(-10.20)
금리 (연이자율)	3.050	환율 (원/달러)	1379.40
	(+0.015)		(-5.50)



다시 기업가정신
구광모
LG그룹 회장
03

이노베이션·E&S 합병... SK, 재무구조 개선 힘 받는다

이노 산하에 독립형태 E&S 편입 합병비율 자산가치 기준 1대 1.2 내달 중 임시 주총 등 후속절차 내부불만 여전해 추가 설명 필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추진되며 '100조' 규모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다음 달 중으로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최대주주인 SK㈜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SK E&S는 CIC (Company in Company) 형태로 독립된 회사로서 SK이노베이션 산하에 편입될 예정이다.

SK그룹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게 유리하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현재 자산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을 하는 게 회사에 유리하다. 반대로 SK E&S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SK가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신설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주)SK는 SK E&S에 대한 지분을 90% 갖고

있어, 주가를 기준으로 SK E&S 가치가 SK이노베이션보다 높을 수록 합병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구체적인 합병 비율은 1:1.2 비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비율이란 합병회사 간 주식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에 따라 합병 과정에서 어느 회사가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는지 결정된다.

SK그룹의 에너지 사업 중간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화학, 자원개발 등 화석연료 기반의 회사로 보유 자산만 약 86조원에 달한다.

또 비상장사로 '알짜'로 알려진 SK E&S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 19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1조1672억 원과 영업이익 1조3317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그룹 에너지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금창출력이 뛰어난 SK E&S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여전히 내부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실적이 좋았던 SK E&S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성과급 축소,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부 관계자는 "SK E&S의 수익성이 좋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



메트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 'SK온 살리기'의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인원이 많다"라며 "주후 IPO 가능성도 사라지다 보니 구성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설명했다.

SK온은 당장 재무부문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은 가능하나,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직원들의 임금 부분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SK온은 흑자 전환 때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양질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만큼 임직원들의 연봉 협상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금리인하·트럼프 당선 관측에 국제금값 또 사상 최고치 경신

금 선물, 온스 당 2500달러 목전

하 가능성을 시사해 9월 인하 전망에 힘을 더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 당 2500달러를 목전에 뒀다. 고용-인플레이션 둔화에 미 연방 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9월과 11월에 금리를 연이어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며 금 가격을 빠르게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스당 2467.8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38.90달러(1.6%) 오른 수준으로, 이날 국제 금 가격은 지난 5월 20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가인 2438.50달러와 장중 최고가인 2454.2달러를 모두 경신했다.

국제 금 가격은 연준이 오는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앞서 발표했던 4-5월 고용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어 1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예측을 하회하고 3개월 연속 둔화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해졌다.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인

하 가능성을 시사해 9월 인하 전망에 힘을 더했다. 지난 15일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정책 완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라면서 "1분기에는 추가적인 자신감을 얻지 못했으나, 지난주 수치를 포함해 2분기에 발표된 세 가지 수치는 상당 부분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전망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에 육박한다.

지난 13일 발생한 충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트럼프는 주요 공약으로 높은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및 소비세·법인세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동맹국에 대한 군사 분담금 인상 요구, 대중 갈등 심화 등 '아메리카 퍼스트'로 일컬어지는 강경한 외교 원칙을 고수했던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안전 자산인 금의 선호를 끌어올렸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 등 수도권 '물폭탄'에 침수피해 속출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서울 하천 29개소 도로 4개소 통제

17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기상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서울 전역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17일 정오 기준 서울 시내 하천 29개소와 도로 4개소(동부간선, 증산교, 사천교, 가람길)가 통제됐다.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서 서남·동남·동북권 내 10개 자치구에서는 침수 재해 약자를 돕는 동행파트너 176명이 출동해 반지하 주

택 거주자 등의 안전을 살폈다.

시는 빗물펌프장 14개소와 저류조 6곳 등 방재시설을 가동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의 피해가 컸다. 17일 오전 일찍부터 집중호우가 퍼부으며 침수 신고가 잇따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총 424건의 폭우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호등 고장 신고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수 신고 115건 ▲기타 69건 ▲토사 유출 21건 ▲교통사고 12

건 ▲나무 쓰러짐 4건 순이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근길 전동차가 운행을 멈추는 피해도 있었다. 17일 오전 8시부터는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 전동차 운행은 50분 만에 재개됐다.

폭우로 집에 갇힌 시민이 긴급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께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집 안에 물이 들어차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원희룡 "한동훈 댓글팀 사실이면 징역" /사진 뉴스스
▲ 與김장겸,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 발의

▲ 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 집중호우에 北 매설 '나뭇잎 지뢰' 유입 우려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범죄 징계시효 늘려라"
▲ 행안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 /사진 뉴스스

경희궁 일대, 서울광장의 10배 규모 역사문화공원 만든다

2026년 경희궁지 역사공원 조성
국립기상박물관 등 공공부지 4곳
11년 동안 4개 테마 공간개선 추진
보행 네트워크 등 구축, 접근성 강화
1915년 철거 돈의문·한양도성 복원

오는 2026년 조선 후기 대표궁궐인 경희궁지에 역사정원이 들어선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2035년까지 경희궁 일대에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도심 속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4곳의 공공부지(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약 13만6000㎡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접근성이 낮고 별다른 콘텐츠가 없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희궁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구상안을 마련해 해당 지역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35년까지 ▲경희궁지 역사정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안.



돈의문 복원 예시.

/서울시

원 조성과 주변 녹지네트워크 연계 ▲돈의문과 한양도성 복원 ▲교육청 부지 기능 전환과 역사박물관 이전 방안 모색 ▲돈의문박물관마을 녹지화 및 공간 재구성 총 4개 테마로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경희궁지내에 역사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진입로와 같이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시설은 털어내고, 궁궐숲 조성과 왕의 정원 연출을 통해 경희궁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며 “비워져 있는 공간 특성을 활용

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 공간을 연내 정비하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경희궁 전체의 모습을 바꾸어나간다는 복안이다.

경희궁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새문안로변에는 가로 정원을 설치하고, 경계부담장을 정비해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녹지·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기상박물관 일대에는 기후환경숲을 만들어 교육·체험의 장으로도 활

용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경희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L’자형 어도(왕의 길)를 상당 부분 점유한 서울역사박물관 이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도 복원을 위해서는 역사박물관 이전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1988년 경희궁지 내 건립을 어렵게 승인받아 2002년 개관했다”면서 “시대별 중첩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과 경희

궁지가 아닌 곳에 제대로 건립돼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이전 적정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복원하면서 철거한 돈의문과 한양도성도 함께 복원할 예정이다. 돈의문 복원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대학과 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부지 일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시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도 재정비한다. 주변 도시 공간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상 여가 문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미래 지향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엄숙하고 진지했던 경희궁 일대가 문화 여가가 있는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2.5%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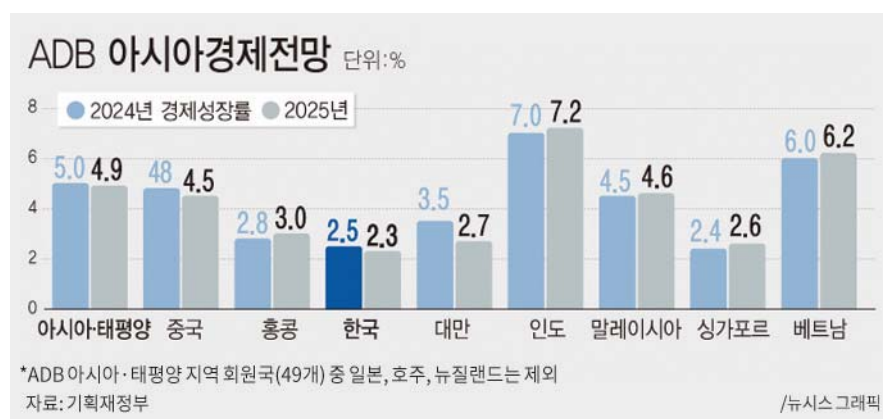
ADB, 7월 아시아경제전망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0.3%p 올려
올해 물가상승률 2.5%, 내년 2% 예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ADB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기존 2.2% 대비 0.3%포인트(p) 올렸다. ADB는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따라 지난 4월 발표(2.2%) 때보다 0.3%p 상향했다고 밝혔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예측



치는 올해 2.5%, 2025년 2.0%를 제시했다. 모두 지난 4월 전망 수준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1%p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 지역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등 내수 침체 지속 등을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이 지속되고,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2024년 2.9%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2025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과 인도의 2024 GDP 성장률과 관련해, ADB는 각각 지난 4월의 4.8%, 7.0% 전망치와 같게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망분리 규제 ‘유연성 부여’ 단계적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 날 CEO초청 세미나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기술의존도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에서 보안사고는 금융안정성 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게된 만큼 금융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일률적 보안 규제로는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위협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이다. 기관·기업 내부망과 일반 인터넷망을 단절해 확실한 보안조치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한번 보안의 벽을 넘으면 보안이 전파되지 않아 기밀 안전 위협이 더 크다는 평가가 있었다. 중요도에 따라 보안을 달리하는 방안 등으로 유연성을 부여해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구속영장 청구

시세조종 위반 혐의... 22일 심사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실패위원장(사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장대규)가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

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에 관한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 M엔터 주식을 장내 매입하며 총 553회



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약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1면 ‘금리인하·트럼프...’서 계속

전문가들은 금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글로벌 지수 기반 거래소인 시티인덱스(City Index)의 파워드 라자크자다 애널리스트는 “경제지표 약세 및 인플레이션 압력 하강에 채권수익률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수익률이 낮거나 제로인 자산의 매력을 높여, 금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귀속금 유동성체 유에스머니리저브(U.S. Money Reserve)의 에드

먼드 모이 수석 전략가는 “최근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별로 없지만, 금은 그 중 하나”라면서 “금 수요 증가와 금 공급 제한은 통상 금 가격 상승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궁극적인 금리 인하, 지정학적 불안정,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 중앙은행의 금 수요 등 금가격의 상승 요인들은 대부분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고객가치·실용주의·세대교체’ 혁신경영... ‘뉴LG’ 본격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실용주의 조직문화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회장보다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올해로 취임 6주년을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젊은 총수 답게 과감한 혁신으로 조직을 뿌리채 바꿨다는 평을 받는다. 구 회장은 형식보다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달리 ‘회장’이라는 직위가 아닌, ‘대표’라는 직책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이는 그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었다.

◆4대 그룹 중 가장 젊은 총수 ‘조직문화 변화’ 주력

1978년생인 구 회장은 서울 영동고와 미국 로체스터 인스티튜트 공과대 컴퓨터과 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졸업한 해인 2006년 LG전자 재경부 대리로 입사했으며, ㈜LG와 LG전자를 오가며 경영 수업을 받고 단숨에 회장직에 올랐다.

구 회장, 고객 중심 사업·조직 개편 ‘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방점 40대·여성 등 우수인재 전진 배치

이 때 그의 나이는 4대 그룹 총수 중 가장 젊은 만 40세였다. 다만, 그가 어린 나이에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것은 LG그룹의 장자 승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큰 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구 회장을 양자로 들이면서 LG그룹 총수의 장남으로 올라서게 된 것.

2018년 6월 구 회장은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직후 가장 먼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주회사 대표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그는 계열사 현장을 방문하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되는지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매번 거듭했다. 사업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계열사 CEO의 몫이지만, 구 회장은 계열사 CEO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



구광모 LG그룹 회장

는다는 것을 표현한 셈이다.

구 회장은 특히 격식차원에서 진행됐던 그룹 회의도 실용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꿨다. 회장 취임 후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회의체나 모임을 형식보다는 실용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꾸고 보고와 회의 문화를 개선했다.

아울러 대내외 행사에 적극 참여해 리더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프로야구 LG트윈스 구단주인 그는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자 환호성을 지른 데 이어 선수단 회식 자리까지 동행했다. 이후 통합우승 행사에서는 구 본부 전 회장이 1995년에 직접 마련한 오키나와산 아와 모리 소주로 함께 축배를 들기도 했다.

◆미래성장 동력 마련하고 체질개선

구 회장의 실용주의는 곧바로 혁신경영

으로 거듭난다. 그는 ‘고객가치’를 강조하며 비핵심·부진 사업을 줄이고, 배터리·자동차 전장 등 성장동력을 강화했다.

부진했던 모바일 사업을 종료하고 ▲LX 계열 분리 ▲LG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IPO) ▲LG 인공지능(AI) 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하며 체질개선에 성공한다.

무엇보다 구 회장은 미래 먹거리로 정한 ‘A·B·C’(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년간 100조원을 쏟아붓는 동시에 절반 이상을 경쟁력의 원천인 연구개발(R&D)에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구 회장은 지난 ㈜LG 주주총회에서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새로운 성장축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10년, 15년 뒤를 대비한 미래 기반 확보에 더욱 힘쓰

겠다”며 사업 본격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AI)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LG AI연구원을 설립해 초거대 멀티모달 AI를 공개하고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AI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초거대 AI ‘엑사원’을 앞세우고 미시간대(미국)-서울대(한국)-토론토대(캐나다) 등과 공동 연구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해 북미 시장을 찾아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 미 테네시의 LG전자 생산법인 등을 방문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허브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찾아 미래준비를 위한 전략을 강구했다.

◆젊은 리더 발굴...역대급 실적 달성

구 회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발굴에도 진심이다. 지난해까지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급 인재만 110여명에 달할 정도다.

비핵심·부진 사업 과감히 정리 전자·화학 등 계열사 실적 개선 리더십 증명... 젊은 총수 우려 해소

2018년 3M의 해외사업을 이끌던 신학철 부회장을 LG화학의 CEO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윤창렬 부사장 등 15명 등이 LG에 합류했다. 6년 동안 여성 임원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해 인사서는 100여명 이상의 신임 상무 발탁해 젊은 리더층 두텁게 만들었다. 실제 100여명의 신임 상무들 중 50% 이상이 40대의 젊은 인재들이었다. 이같은 혁신경영은 양적·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4~6월)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2% 올라 2분기 기준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8.5% 올랐다. 또 계열사인 LG화학의 생명과학분부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 매출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구 대표는 젊은 총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리더십을 재평가받았다.

한편, 구 회장은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바탕으로 한 구체화된 고객가치 경영 철학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LG만의 가치를 제공하는데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차별적 고객 가치’와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반도체 설계 업체 텐스토런트 CEO 짐 켈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미국 테네시에 위치한 LG전자 생활가전 생산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LG 트윈스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 현장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SK그룹, 체질개선 리밸런싱 첫발... “배터리·친환경 강화”

(구조조정)

200개 넘는 계열사 구조조정 예고
내실경영 통해 질적성장 추구 강조
그린·화학·바이오 등 경쟁력 증진

SK그룹이 체질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리밸런싱(구조조정) 작업이 첫 발을 내딛었다. 자산 106조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을 탄생시킨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바로 그것이다. 또 SK온과 SK에코플랜트에 우량 계열사를 각각 붙이면서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알차 친환경 사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SK가 보유한 계열사가 여전히 200개가 넘는 만큼 리밸런싱 작업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경영전략회의에서 “그린·화학·바이오 사업 부문은 시장 변화와 기술 경쟁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실 경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SK

SK E&S의 현금 창출 능력은 그룹에서도 손꼽힌다. SK E&S는 작년 영업이익 1조419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1조9039억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SK E&S의 수익성은 SK온의 영업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어 양사 간 합병의 주요 배경이 됐다.

또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도 오랜 기간 키워 온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 하에 사업 구조개편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SK온은 분사 이래 10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해 누적 적자 규모만 2조 5800억원 대에 이른 상황이다.

비록 현재 실적은 미흡하나 중장기적으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계열사들이 배터리 사업을 지지하는 경영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SK온의 자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자체적인 수익성 창출 능력 확보도 필요하다. 많은 돈을 투자해도 결국 자사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당장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기차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전기차 구매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IPO 준비에도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IPO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선 SK온의 정상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SK그룹 건설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에센코어와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인수 방안을 의결한다. 에센코어는 SK㈜ 산하 반도체 가공·유통 회사다.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는 SK머티리얼즈의 산업용 가스 회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련의 사업 재편이

SK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사업 중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사이지만 최근 2~3년간 친환경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다. 2022년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테스를 인수기도 했다.

SK의 리밸런싱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사업 재편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SK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여개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과 원유 석유 제품 트레이딩 기업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탱크터미널 사업을 하는 SK엔텀을 합병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576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출범한 SK엔텀은 시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탱크 터미널 사업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美 허가 앞둔 ‘렉라자’... K바이오, 4세대 폐암치료제 개발 가속

브릿지바이오, BBT-207 임상 1상 HK이노엔, 비소세포폐암 신약 개발 유한양행, 렉라자 허가여부 내달 공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4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TKI) 계열 폐암 신약 개발에서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BBT-207’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최근 해당 임상시험에서 세 번째 용량군 투약 데이터 검토를 마치고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네 번째 용량군 투약 단계에 진입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 투약하는 약물 용량을 단계적으로 증량하면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것이다.

이번 네 번째 용량군은 회사가 약물 유효성 확인을 기대하는 중·고용량군의 핵심 용량 범위라는 것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의 설명이다. 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약효 신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용량군에 더 많은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BBT-207 임상 1상 첫 투약은 지난 2023년 10월 국내 기관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3세대 EGFR TKI 치료제 중 하나 이상으로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개시됐다.

BBT-207은 C797S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는데, C797S는 3세대 EGFR TKI 치료 후 나타나는 내성 돌연변이다.

C797S 돌연변이로 인해 3세대 EGFR TKI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연간 약 8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등 신규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EGFR TKI 제제가 지속 개발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 시장에 HK이노엔은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HK이노엔은 알로스테릭 EGFR-T

KI 후보물질로 ‘IN-119873’을 연구하고 있다. HK이노엔은 해당 물질이 기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L858R 변이를 치료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K이노엔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 치료제 시장 중 L858R 변이는 약 40%를 차지한다.

‘IN-119873’은 EGFR 단백질 구조 중 알로스테릭 자리를 공략해 EGFR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춰 기존 치료제들과 차별화했다는 것이 HK이노엔 측의 설명이다. 특히 HK이노엔은 ‘IN-119873’의 차별점을 기반으로 보다 높은 안전성을 갖춘 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HK이노엔은 해당 물질과 3세대 EGFR TKI의 병용 요법에도 주력하고 있다. HK이노엔은 ‘IN-119873’ 비임상 연구 완료 후 연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다양한

돌연변이를 표적할 신약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EGFR TKI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글로벌 시장 재편을 노리고 있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안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말)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여부 오는 8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트비메디슨(전 안센)은 지난 2023년 12월 미국 FDA에 해당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단독요법으로는 승인받은 바 있다. 향후 두 약물의 병용요법이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는 경우, 유한양행은 올해 4분기 중 안센으로부터 미국 출시 마일스톤으로 60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또 유럽, 중국 시장에서도 출시돼 추가적인 마일스톤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형하 기자 mlee236@

라인야후 사태 소강국면... 소프트뱅크 “자본관계 재검토 포기”

네이버와 50%씩 지분 유지
한국 정부·여론의 반발 영향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국면을 맞이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 정보 유출 문제로 행정지도를 받은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 작업을 단기적으로 단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기존대로 네이버와 50%씩 유지한다.

보도에서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네이버와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우리는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으나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향후 ‘일본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주식 매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각각 50.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한 A홀딩스 산하 기업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

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야후(YAHOO)’를 서비스 한다. 현재 라인인 일본에서 한국의 카카오톡에 견주어지는 수준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다. 지분 상실에 따른 네이버의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측은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에 라인 관련 지분 매각 의사가 없음을 강경히 밝혔다. 2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회에서 “단기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에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측은 이번 자본관계 재검토

단념의 이유로 한국 국내 여론의 악화와 네이버 및 라인야후 노동조합의 반발, 한국 정부 및 야당의 부정적인 반응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는 라인야후를 둘러싼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이 자본관계 재검토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데에는 ‘외교적 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권고했던 일본 총무성도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인다. 지난 5일 마쓰모토 다케야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행정지도 보고서와 관련해 “지도사항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

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서는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마쓰모토 총무상은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관계사인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 내용에는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서현 기자 seoh@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청년의 꿈 하나증권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청년케어'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증권 '청년케어'

하나증권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약 20만명의 청년 중에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브랜드240108-0086

하나증권

與 ‘당정관계 개선’ 최대 화두... 지지자 “응원후보가 책임자”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

정치권 “韓 당 대표 되면 파열음 친윤계 元, 직언 기능상실 우려”

韓 지지자 “관계 오히려 좋아질 것”
元 지지자 “尹과 가장 밀접한 관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당정관계 개선’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관계는 말그대로 당과 정부의 관계를 뜻하는데, 현장의 여론을 정당이 모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과 관계가 떨어진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관계에 파열음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반면,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정부에 직언 하는 기능이 상실되지



국민의힘 한동훈(왼쪽부터),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17일 경기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않을까 걱정한다.

각 후보들은 방송토론이나 합동연설회 등에서 자신이 당정관계를 수습 및 개선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이를 담은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장에 운집한 지지자

들은 저마다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가 당정 관계 수습의 책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합동연설회엔 추최 추산 5000명의 지지자와 당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한동훈 후보의 이름이 써진 피켓을 노래에 맞춰 흔들던 여성 지지자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한동훈 후보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함부로 인터뷰하지 말아야 한

다는 주변 지지자의 만류에도 이 지지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 사람은 오직 한동훈 후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동작구에서 왔다는 남성 지지자는 나 후보에 대해 “동작구에 흥수 피해가 났을 때, 일정이 있음에도 차를 돌려서 직접 몸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신 분”이라며 “국민의 힘에서 오랜 경륜이 있고 이 시대에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가 당정관계 개선에 적합할지 묻는 질문엔 “나 후보는 사심이 없고 당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당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후보는 굴복하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언도 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정치학박사라고 밝힌 정영국 씨는 “윤상현 후보는 의리가 있고 인간

성 좋은 정치인”이라며 “지성과 지혜, 경륜이 있는 후보,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후보, 당정관계 정상화와 여야 극단적 상황 해소에 있어서 정치철학이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다.

당정관계에 대해선 “지금 당 대표들이 지금은 서로 반박하지만,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를 맞으면서 원 후보를 응원하던 지지자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몸싸움이 정리된 후 만난 원 후보 지지자는 “원 후보는 제주지사 할 때부터 지지했고 일을 그 누구보다 잘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이고 두뇌 또한 탁월하다”고 치켜세웠다.

당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원 후보가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할 후보”라고 했다. /고양(경기)=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재명 45%’로 대세론 곳곳

여론조사 김두관 30.8%, 김지수 3.4%
野 지지층 대상으로는 85.6% 나와
지난 전당대회와 비슷한 양상 전망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본격 시작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야권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15일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5%, 김두관 후보 30.8%, 김지수 후보 3.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를 택한 비율은 20.3%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85.6%, 김두관 후보는 8.0%, 김지수 후보는 2.8%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국민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40.1% 포인트 높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5% 가량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당심은 70%, 민심은 30%인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당대회 결

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야권 내에서 이 후보의 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최다 득표율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또 한번 최고 득표율을 경신해야 ‘2기 지도부’가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향후 대권 가도를 향한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얻거나, 이를 넘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한 방송에

서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앞자리가 7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89%, 90% 이렇게 나오면 ‘더불어공산당이나’는 비판이 나올 것 같고, 앞자리가 6으로 떨어지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네’ ‘이재명 반대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대표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득표하는 걸 목표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두관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이 77대 23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 전당대회와는 당내 상황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5개월 만에 진

행된 2022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경쟁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득표율을 재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나, 김지수 후보의 인지도를 고려해보면, 이 후보는 아마 무난하게 지난번 득표율을 넘을 것 같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자 당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수장으로서 연임에도 도전하는 이상, 지난 전당대회 당시의 지지율이 1차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조사(무선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강행 중단해달라”

“與와 원점에서 법안 재검토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 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내정

(전 국민의힘 의원)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뒀다고 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공식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태 전 의원 기용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포용 기조를 상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서예진 기자



오징어가 살아있다



오징어얼라이브 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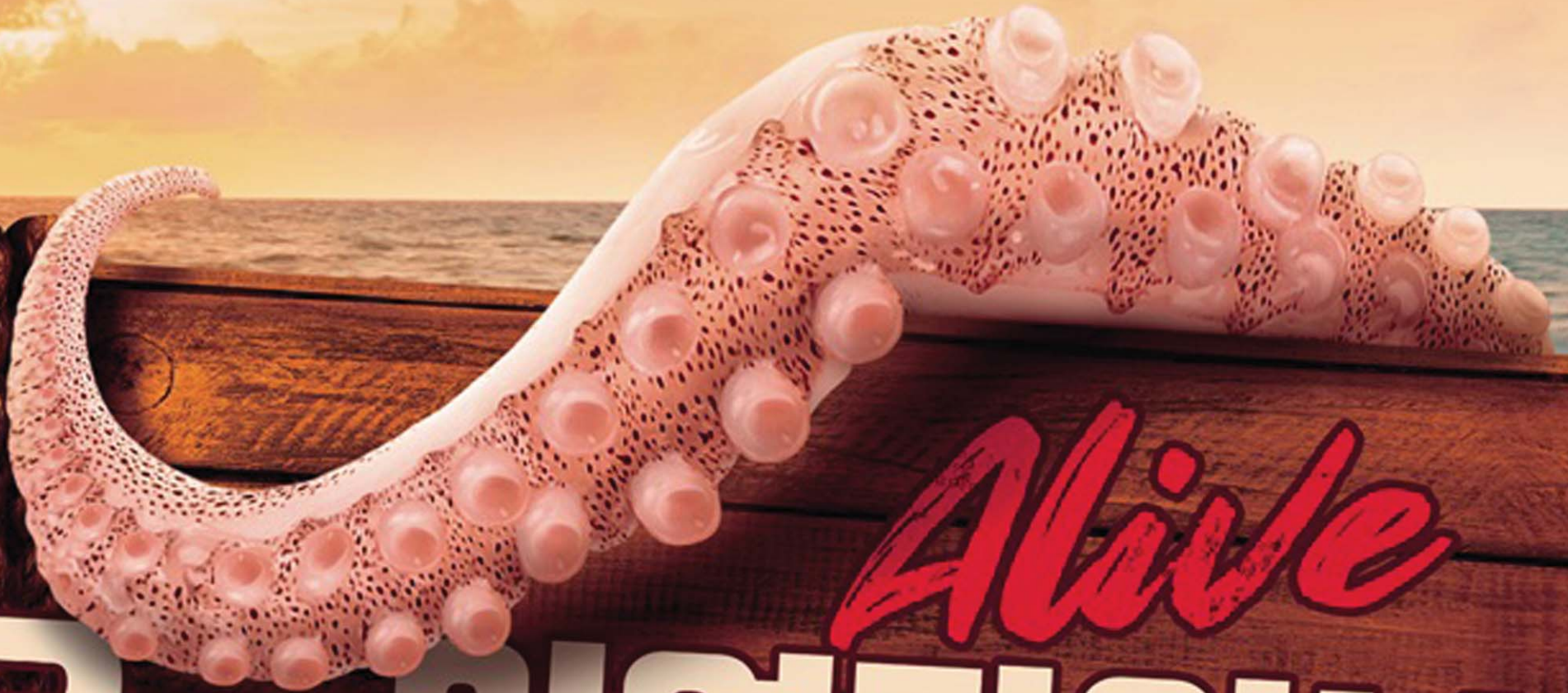
단품 ₩ 5,500
세트 ₩ 7,600



오징어얼라이브 비프버거



단품 ₩ 5,700
세트 ₩ 7,800



오징어얼라이브 Alive Burger

서울 강북도, 경기 광명도 '국평' 분양가 12억원이 뉴노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전용 84㎡ 12억에도 청약 몰려 고분양 논란 광명 단지도 완판 수도권 집값 들썩에 물량 소진

앞으로 서울 강북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도 '국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2억원이 하한선이 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곳도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미분양이 났던 단지들은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17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에 재개발해 들어서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5대 1로 집계됐다. 365세대 모집에 1만2830명이 청약하면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용 59㎡B와 84㎡A가 각각 44대 1, 42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역시 평균 14.79대 1로 집계됐다. 353세대 모집에 5223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44세대가 배정된 59㎡A형 생애최초에 3000명이 넘게 몰리며 경쟁률이 69대 1에 달했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트리우스광명 분양 홈페이지 취합.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위 입지인 성북구에서 국평 12억원 분양가가 무리없이 소화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3.3㎡(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7만원이다. 평형별로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가 9억6799만원, 전용 84㎡가 12억1100만원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주변 시세보다 높았지만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분양가

가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내년 3월에 입주할 앞둔 '장위자이레디언트'의 입주권은 전용 84㎡가 지난달 12억1000만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존 준신축들의 가격도 뛰었다. 장위뉴타운 대장주였던 꿈의 숲아이파크가 지난달 전용 84㎡가 1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으로 줄줄이 미분양이 났던 광명 단지들은 남은 물량을 모두 팔아치웠다. 모두 국평이 12

억원 안팎이었던 곳들이다.

광명 2구역에 들어서는 트리우스 광명은 최근 완판을 공지했다.

트리우스 광명을 총 3344가구 규모 대단지로 작년 10월 730세대에 대해 청약을 진행했지만 100세대 이상이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당시 분양가가 전용 84㎡가 11억5000만원, 102㎡가 13억6000만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올해 2월 105세대에 대한 임의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청약에도 남아있던 분양물량은 최근 빠르게 소진됐다. 인근 단지인 광명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용 84㎡가 지난 4월 11억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역시 남은 분양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2억3500만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1%나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06만4000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3 암 치료 보장 강화

삼성생명이 암 치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 고액 항암치료 8종 최대 10회 보장
삼성생명은 암 치료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3'를 오는 18일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리미엄암직접치료보장' 특약을 신설해 암 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암직접치료보장특약과 함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90일이 지나면 표적약물, 로봇수술 등 고가의 최신 항암치료 8종을 최대 1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항암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재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항암약물·방사선치료후 72대 질병 및 재해보장' 특약은 업계 최초로 항암치료 후 발생 가능한 72대 질병 및 재해를 보장한다. 또한 '종합병원이상암직접치료통원' 특약을 신설해 기존 상급병원에만 차등 제공되던 보장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多)모은 건강보험 S3는 최신 암 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암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재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암 치료비에 대비하기에 최적의 암보험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약제 종류 구분없이 항혈전제 치료 보장

현대해상이 혈전치료 보장 담보를 신설했다.

◆ 특정순환계질환 관련 혈전생성을 막는 약물치료 보장

현대해상은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순환계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전 생성을 막는 '항혈전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치료를 보장하는 담보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사나 경구 투약 방식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순환계질환에 맞춰 최초 1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매년 지급하는 형태로 개발했다. 업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의약품 분류 기준(ATC코드)을 도입해 항혈소판제 관련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더라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고 약제 종류에 상관 없이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웹테크 공들이는 한화손보, '女 특화보험 명가' 노린다

라이프플러스 웹테크연구소 1주년 난소검사부터 유방암검사 특약 등 여성연구·특화종합보험 개발 주력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특화 상품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신규 담보를 선보이면서 여성보험 시장 선두주자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설립한 '라이프플러스(LIFEPLUS) 웹테크연구소'는 지난 6월 1주년을 맞았다. 웹테크연구소는 나체법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의 여성 특화 전략에 따라 보험업계 최초로 설립한 여성보험 연구소다.

웹테크연구소는 1년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여성 중심 사업의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여성 전문 연구소인 라이프플러스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사옥. /한화손해보험

스 웹테크연구소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보낼 수 있도록 여성 소비자들의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한 특화 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웹테크연구소는 지난해 7월 '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으로 첫선을 보인데 이어 올해 1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을 출시했다. 차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유방암 특약과 업계 최초로 '난소기능검사'와 '난자동결시

술 우대서비스'를 선보여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해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3월 신계약 매출 기준 100억원을 달성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 소비자들의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하는 특화 상품, 서비스가 고객의 수요에 부응했다"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건강보험 인기로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화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은 1249억원으로 전년 동기 995억원 대비 25.5% 증가했다. 또한 신계약보험계약마진(CSM)은 1986억원으로 49% 증가해 전체 손보사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여성 보험 시장 선두주자인 한화손해보험의 뒤를 이어 다른 보험사도 여성보험 잇따라 출시했다. NH농협생명

은 지난 5월 여성전용 상품으로 '핑크케어NH건강보험(무배당)'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출시 한달만에 판매건수 2만건을 돌파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 6월 '신한건강보장보험 ONE더우먼'을 여성특화 상품으로 출시했다.

후발주자에 맞서 한화손해보험은 특화 상품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그동안의 여성보험 시장에서 살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 특화 선두주자로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6월엔 유방암 예후예특검사비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얻은 데 이어 이달 초 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을 개정 판매해 차별화의 서막을 알렸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웹테크연구소와 같이 여성에 대한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타 보험사에 없는 신규 담보들을 선보이면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며 "차별화 전략을 통해 여성 보험 시장을 리딩하고 앞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당국,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위법·부당사례 공유로 재발 방지

금융감독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하는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말

까지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검사시 확인된 주

요 법규위반 사례 공유 ▲업무시 유의 사항 교육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안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전파 ▲신용정보 집중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으며, 대부업 관리·감독 유의사항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EV3, ‘i-페달 3.0’ 등 첨단 기술 총망라… 만족하실 것”

기아 ‘EV3 테크데이’

차량 개발 연구원들 현장 참여 스마트회생제동 등 신기술 소개 “EV3, 전기차 대중화 도움되길”

“이 차에 쏟은 열정과 헌신을 봤을 때 소비자들도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EV3로 정면 돌파한다. EV3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계약에서 1만대를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EV3는 기아의 첫 전기차 대중화 모델로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상품성을 극대화하면서 가격은 3000만원대로 낮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파이팩토리에서 ‘더 기아 EV3 테크 데이(The Kia EV3 Tech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콤팩트 SUV 전기차인 더 기아 EV3의 상품성과 기아의 우수한 전동화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V3는 ▲i-페달 3.0 ▲스마트회생 시스템 3.0 ▲THIN HVAC 등의 최신



기아 MSV프로젝트5팀 윤기완 책임연구원이 EV3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대성 수습기자

기술이 적용됐다. i-페달은 페달 하나로 가속은 물론 제동까지 가능한 기능이다. 이번 3.0 버전에서는 메모리 기능이 추가돼 전원을 껐다가 시동을 켰을 때 아이 페달 단계가 유지되고, 후진 시에도 아이 페달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회생 시스템’도 3.0버전으로 적용됐다. 이번에 적용된 3.0은 과속 카메라 정보만 활용했던 기존 시스템에서 다양한 내비게이션 기반 정보를 활용해 ▲과속 카메라 ▲좌/우회전 ▲커브길 ▲속도제한 ▲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여러 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하는 기능



기아는 16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더 기아 EV3 테크 데이’를 개최했다.

/기아

이 추가됐다.

‘THIN HVAC’은 기존 공조 시스템 대비 상하 크기를 33% 줄여 콕핏(대시보드 부품 모듈) 하단부로 공조 시스템이 노출되는 영역을 최소화했다. 발거주 공간을 동승석 기준 6cm 더 넓혔으며, 내부 공기 유로를 단순화해 시스템 크기를 줄이면서도 풍량은 증가시키고 소음과 전력소비는 낮췄다.

기아는 첫 전용 콤팩트 SUV인 만큼 EV3의 주행 성능과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 확보에도 신경 썼다. EV3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산업부 인증 기준 1

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501km이며, 셀 단위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해 동일한 400V 시스템이 탑재된 니로 EV 대비 약 22%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췄다. 또 니로 EV 대비 급속충전 시간을 약 12분 단축해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31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EV3 테크 데이 현장에서는 차량을 개발한 연구원들이 직접 나와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윤기완 책임연구원은 “EV3를 통해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되어야 한다”며 “EV3에 어떤 신기술이 들어가는지 상

세히 소개하고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EV3를 개발한 연구원들은 EV3에 적용된 신기술 중 ▲스마트회생제동 ▲생성형 AI음성비서 ▲아케이드 게임·스마트TV 콘텐츠 기능을 주요 변경점으로 꼽았다.

이어 EV3 가격에 대해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생산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회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EV3를 성공시키기 위한 가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ids@metroseoul.co.kr

삼성전기, 전기차용 고전압 MLCC 개발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800V 배터리 관리 시스템 탑재 400V 대비 충전시간 단축 등 이점

삼성전기가 800V(볼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탑재되는 고전압 MLCC 라인업을 출시했다.

삼성전기는 BMS용 2000V MLCC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란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으로 스마트폰, PC, IT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5G, IoT 관련 제품에 두루 사용된다. 특히 자동차에는 동력전달, 안전,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파워트레인 등에 최소 4000개에서 2만개의 MLCC가 탑재된다.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배터

리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용량을 높이는 추세다.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압이 높아져야 한다.

현재 전기차는 주로 400V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최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순수전기차(BEV)를 중심으로 800V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삼성전기가 고전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은 2종으로, 2000V를 보증하는 3216(3.2mmX1.6mm)크기에 1nF(나노패럿-용량), 2.2nF 이다.

삼성전기는 원자재를 독자 개발하고

내부전극의 구조를 변경해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MLCC를 개발했고, 자동차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 규격인 AEC-Q200 인증을 취득했다.

800V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은 기존 400V 대비 충전시간 단축, 차체 경량화, 설계공간 확보에 이점이 있다. 이에 맞춰 800V 고전압 전기자동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전마진 2배 이상의 2000V 고전압·고신뢰성의 MLCC 탑재 비중 및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전압 MLCC 시장 규모는 2024년 40억 달러에서 2029년까지 약 110억 달러로 연 평균 약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트랜시스, AI 시스템 ‘TADA’ 적용

자체 개발… 검사 정확도 99.9%

현대트랜시스가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 ‘TADA(Transys Advanced Data Analytics)’를 생산 현장에 적용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트랜시스는 17일 충남 서산공장 7곳과 미국 조지아 파워트레인 공장의 54개 공정에서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 ‘TADA’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TADA는 ▲스마트 제조기술 구현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빅데이터 플랫폼 ▲임직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 강화 교육 등 현대트랜시스 사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이다.

TADA 스마트 솔루션은 제조·조립 과정에서 부품 내부의 작은 기포, 파손 등을 체크하는 스캔(Scan) 과정 진행 시 딥러닝 AI가 불량률 잡아내는 비전 검사 솔루션이다. 완벽한 품질의 부품 투시 이미지를 학습한 TADA 스마트 솔루션은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불량까지 잡아내 기존 93%의 검사 정확도를 99.9%까지 끌어올렸다.

현대트랜시스 ICT추진실 김영욱 상무는 “2022년부터 TADA 사내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업무방식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생산, 개발, 지원 등 전 사업영역의 디지털 혁신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이동형 로봇기술 국제표준 획득

‘IEC 61508·ISO 13849’ 동시 인증

삼성전자의 이동형 로봇용 기술이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동형 로봇용 안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국제 인증기관인 DVN로부터 국제 규격 ‘IEC 61508’과 ‘ISO 13849’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EC 61508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 표준으로 안전 무결

성 기준(SIL)에 따라 안전성을 보장하며, ISO 13849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의한 표준에 따라 성능요구 수준(PL)으로 안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삼성전자의 프레임워크는 비상·보호 정지, 충돌 감지, 최고 속도 제한 등 10가지 안전 제어 기능을 제공해 SIL 2등급, PL d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안전 기능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제어 없이도 로봇 제어와 안전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지난 16일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DNV 파트리치아 캄피(Patrizia Campi) 글로벌 제품 보증 본부장(왼쪽)이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최고은 로봇 플랫폼 팀장(오른쪽)에게 ‘IEC 61508·ISO 13849’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삼성전자

있고, 로봇의 장애 진단과 회피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르쉐코리아, ‘마칸 일렉트릭’ 사전계약

마칸·마칸4·마칸 터보 등 4종

포르쉐코리아가 17일부터 전국 포르쉐 센터 및 포르쉐 스튜디오에서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마칸 일렉트릭’의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대상 모델은 마칸, 마칸 4, 마칸 4S, 마칸 터보 등 4종이다.

포르쉐는 지난달 마칸 4, 마칸 터보에 이어 마칸(후륜 구동)과 마칸 4S 2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런치컨트롤 작동 시 마칸은 360마력, 마칸 4S는 516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한다. 최대 토크는 마칸 57.4kg·m, 마칸 4S 83.6kg·m다. 정지 상태에서 시



마칸 4S

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마칸 5.7초, 마칸 4S 4.1초다.

포르쉐는 모든 마칸 모델에 신규 색상 ‘슬레이트 그레이 네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20인치 마칸 S 휠을 새롭게 추가했다. /양성운 기자

국내 가장자산 관련 中企, “해외업체 비해 역차별 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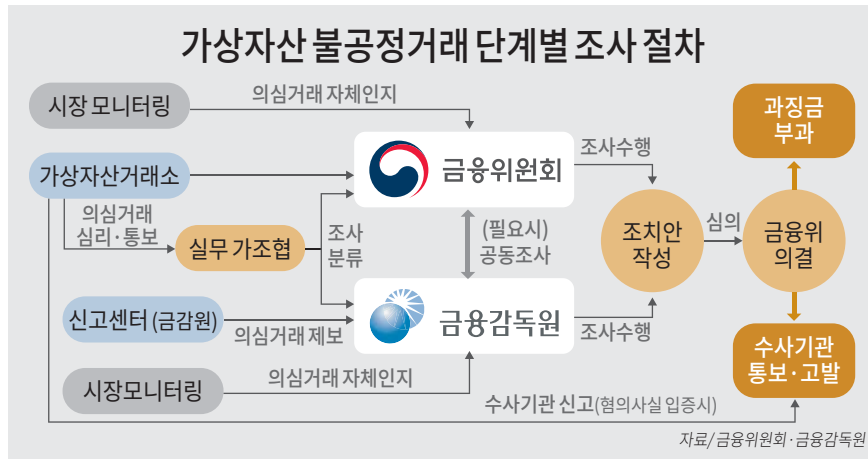
블록체인조합 “외국계 불법영업”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국내 가장자산시장, 6월말 약 55조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가동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장자산에 대한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국내 가장자산사업자(VASP)들이 해외 관련 회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상당수의 국내 VASP가 하반기부터 사업권 만료기간이 본격 도래하는 가운데 갱신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은 영업 중단과 폐업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국내 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해외거래소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자칫 그 피해가 국내 관련 업체와 자산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자국 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낸다”면서 “그러나 법 테두리 밖의 해외 가장자산거래소는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가장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더욱 실효성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는 VASP 중 하나인 가장자산 수탁 서비스(커스터디) 관련 중소기업 50여 곳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벤처캐피탈(VC)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장자산 시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55조 원까지 성장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 대비 1.7%, 국내 주식시장 대비 2.1% 수

준이다. 실거래자수는 2021년 말 558만 명에서 지난해말엔 645만명까지 늘었다. 업계에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가장자산 선물시장은 한국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준복 이사는 “경영의 부침을 받고 있는 국내 가장자산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취득과 VASP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떨어지고 이들의 영업 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 가장자산거래소는 1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M사, L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영하고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 영업,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한 토큰 발행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거래소 L사가 대표적이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L사의 한국대표는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L사는 이 한국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적 일탈로 무마하는 분위기다.

또 해외 B사는 자사 플랫폼내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장에 유리하다는 식의 영업으로 국내 프로젝트 상장을 유인,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장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가장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 신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 구체화를 위한 하위법규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지원 ▲가장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T 이통사 첫 ‘기내 와이파이’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T 기내 와이파이’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T 기내 와이파이’는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SK텔레콤의 T로밍 홈페이지 및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는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와이파이 사용 가능 항공편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식으로 제공됐으며, 항공사에 따라 탑승 후에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 글로벌 항공사 및 글로벌 위성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한 곳에서 기내 와이파이 이용 가능 항공편 확인과 서비스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T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준비했다.

회사는 루프트한자, 일본항공, 중국동방항공, 에어캐나다,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 등 6개 항공사와 협력했으며, 향후 협력 항공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SK하이닉스, 차세대 AI 메모리 솔루션 선배

미국 ‘FMS 2024’ 참가 AI 위한 고용량 낸드 기술 제품 소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달 6~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글로벌 반도체 행사 ‘FMS(Future of Memory and Storage) 2024’에 참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올해 기조연설을 맡아 다양한 AI 메모리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행사 첫날 ‘AI 혁명: 메모리 및 스토리지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맡았다. 짐 엘리엇 미주총괄 부사장, 오화석 솔루션 제품엔지니어링팀 부사장, 송택상 메모리사업부 D램 솔루션팀 상무가 참여한다.

SK하이닉스도 같은 날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아직 연설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최정달 낸드 개발담당 부사장과 안현 솔루션개발담당 부사장이 ‘멀티모달 AI(Multimodal AI) 시대를 구현하는 업계 최고의 4D 낸드 기술 및 솔루션’을 주제로 연설했다.

두 회사는 올해도 첨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양산한 9세대(280단) 낸드를 기술을 소개한다. 낸드는 고용량 제품을 만들기 위해, 셀(데이터 저장단위)을 수직으로 쌓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제품은 원가 경쟁에서 유리한 ‘더블 스택(Double Stac

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이다. QLC는 셀 하나에 4비트를 저장해, 3비트를 저장하는 기존 TLC보다 데이터 저장량이 많다. 또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PM9E1’도 공개한다.

SK하이닉스의 신기술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이 행사를 통해 321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 중인 사실을 깜짝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낸드 개발 경과를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 제품은 이전 세대인 238단 512Gb(기가비트) 대비 생산성이 59%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고용량 제품을 만드는 데 유리한 QLC 낸드 제품 개발 계획도 소개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현재 60TB eSSD의 출시를 계획 중이다.

FMS는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낸드 업계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혁신적인 신제품과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는 낸드를 포함해 D램 등 전 메모리로 규모를 확장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이중데이터속도) 등 최신 D램 제품도 전시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유플러스 임직원이 라이프집 팝업에 마련된 너겟 부스에서 너겟과 스텔프 폰 박스를 소개하는 모습. /LGU+

LGU+ “디지털 디톡스 하세요”

LG유플러스는 자사 통신 플랫폼 ‘너겟’이 MZ세대 고객들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권장하는 브랜드 캠페인 ‘몰입의 순간에 접속해’를 진행한다. 캠페인 취지에 맞춰 스마트폰 데이터를 차단하는 굿즈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너겟은 고객에게 초개인화된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선납형 요금 기반의 통신 플랫폼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인 ‘너겟 5G 6G 26(월 2만6000원, 데이터 6GB)’를 비롯해 18종의 5G 요금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신규 캠페인인 ‘몰입의 순간에 접속해’는 매 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MZ세대 고객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자신의 일상에 맞춰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과의존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구남영 기자

이노비즈협회, IR행사로 12억 투자 결실

‘2024 INNO-Wave’ 개최

이노비즈협회가 우수 이노비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IR 행사에서 인체장기칩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스페로가 12억원의 투자 유치 결실을 맺었다.

17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이노비즈협회와 벤처캐피탈(VC)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IR 행사인 ‘2024 INNO-Wave’를 작년 9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당시 협회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예비)이노비즈기업 5개사를 선정해 VC 및 기술지주사, 증권사와 함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바이오스페로가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센터로부터 투자 유체에 성공했다.

인체장기칩은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체외 환경의 마이크로 칩 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기업 CBAM 대응 지원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전략’ 이더닝 콘텐츠를 18일 공개한다.

17일 중진공에 따르면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일

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제출의무가 추가돼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콘텐츠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CBAM 대응 사례 소개 ▲CBAM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빠르게 서울 이동

검단아테라자이 GS건설·금호건설컨소시엄

GS건설·금호건설컨소시엄은 이달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블로동 일대에서 '검단아테라자이' 59~84㎡ 709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40가구 ▲59㎡B 23가구 ▲59㎡C 261가구 ▲59㎡D 22가구 ▲59㎡E 22가구 ▲74㎡ 99가구 ▲84㎡ 142가구 등이다. 지난 2021년 9월 설립된 ㈜인천검단부천과 안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도의 주택개발 공모 리츠사업으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주택설계부터 주택사업 인허가 및 책임 준공의무까지 맡고 있다.

검단아테라자이는 인천 1호선 연장사업과 다양한 도로망 확충 공사 등으로 향후 교통여건 향상이 기대된

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인천 주요지역 및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검단~드림로간 도로,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검단~경명로간 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이 공사 중이다.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와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가 완공될 경우 김포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 번에 도달이 가능하다.

수변형 상업특화거리인 커널콤플렉스와 중심상업지구가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예정돼 있으며, 인근의 불로지구, 풍무지구, 마전지구 등의 기 조성된 택지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검단 신도시를 아우르는 U자형 녹지축 시작점인 근린공원이



단지 인근에, 9만3000여㎡ 규모의 문화공원이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검단아테라자이의 청약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마련된다. (1833-451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누려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이달말 대단지 아파트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3724가구 중 1681가구를 분양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453가구 ▲59㎡B 247가구 ▲84㎡A 560가구 ▲84㎡B 269가구 ▲84㎡C 147가구 ▲130㎡A 5가구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를 중심에 놓고 진행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총 6기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예상 투자금액만 360조원에

달하며,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자리한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옆에 있다.

또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예정)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과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도 이용 가능하다. 경강선 연장(계획)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인천 수변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일부 세대에서는 우수한 경치를 자랑하는 은화삼CC 조망이 가능하다.

여기에 은화삼지구를 가로지르는 45번 국도는 상부



공원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의 조경 컨셉은 '문화와 소통의 관문'이란 의미를 담은 '더 그린 게이트(The Green Gate)'로, 대우건설은 힐링 포레스트, 패밀리가든, 플라워가든 등 리조트급 특급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신분당선 동천역·수지구청역 부근)에 들어선다.

이천역세권 개발 중심지... 직주근접성 뛰어나

힐스테이트 이천역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이달 이천시 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 중리신도시현대지역주택조합2 사업인 '힐스테이트 이천역' 60~136㎡, 1822가구 중 314가구를 선보인다. 타입별 가구수는 ▲60㎡ 137가구 ▲60㎡S 171가구 ▲74㎡ 386가구 ▲84㎡ 602가구 ▲84㎡S 515가구 ▲126㎡P 3가구 ▲127㎡P 1가구 ▲136㎡P 7가구다. 일반 분양 기준으로는 ▲60㎡ 29가구 ▲60㎡S 34가구 ▲74㎡ 91가구 ▲84㎡ 76가구 ▲84㎡S 76가구 ▲126㎡P 3가구 ▲127㎡P 1가구 ▲136㎡P 4가구다.

최대 특징점은 경강선 이천역 북측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 입지다. 경강선은 분당·관교에서 여주를 오가

는 수도권 남부 철도교통의 핵심 노선이다. 이천역에서 이매역까지 33분, 관교역까지는 38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또 GTX-D 노선을 비롯해 동탄~용인~이천을 잇는 '반도체선'은 남사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원산 반도체클러스터, 이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강선·중부내륙선과 함께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망을 갖춘 핵심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이천시 증일동 일대는 이천역세권 개발의 중심지다.

인근에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비롯해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AT 세미콘, 팔도 등의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있어 직주근접성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단지는 선호도가 높은 남측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가구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타입별로 환관창고,



드레스룸, 펜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타입별로 60㎡타입, 60㎡S타입, 74㎡타입에는 건식 세면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74㎡타입에는 가드닝, 휴바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실 발코니가 적용된다. 단지 커뮤니티에는 실내체육관, 힐스 라운지(카페) 등 지역 내 기존 단지과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다수 적용된다. (031)633-8300

숲세권·교통망·편의시설 '3박자' 갖췄다

대전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쌍용건설

쌍용건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 들어설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를 선보인다.

745가구 중 조합원분 411가구를 제외한 ▲59㎡A 47가구 ▲59㎡B 220가구 ▲74㎡ 13가구 ▲84㎡ 54가구를 분양중이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산업 단지가 밀집돼 있다.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이면서도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될 정도로 대전에서도 손꼽히는 대중교통망

을 갖추고 있다. 올해 대전 전역을 연결하는 트램라인이 착공 예정이며, 개통시점(2028년 예정)엔 단지 앞에 2호선 읍내역(가칭)이 들어선다. 내년에 경부고속도로 회덕IC와 2026년 예정된 충청권 광역철도 회덕역이 개통되면 대전 중심지는 물론 세종시 등 타 지역 이동도 편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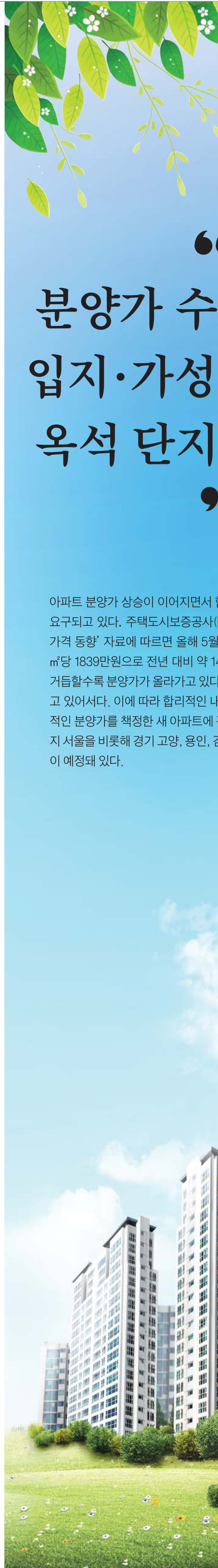
이마트(대전터미널점), 하나로마트(회덕점), 오정농수산물시장, 대전병원,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송촌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 내외에 오갈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1500여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1600여가구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단지는 세련된 커튼월 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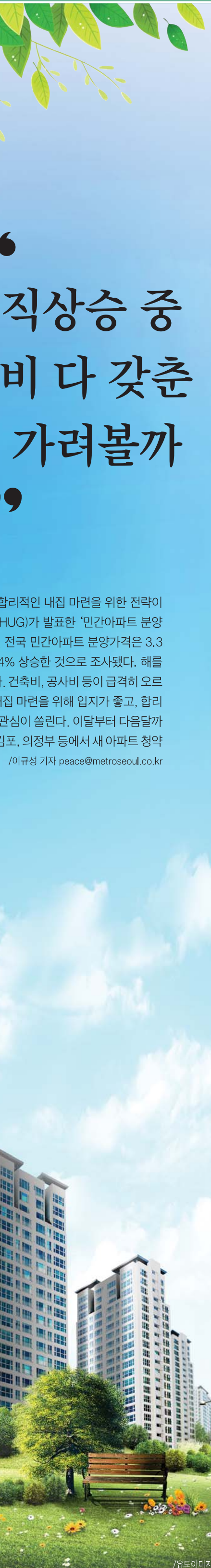
외관을 적용하고, 각 세대(일부 제외)에는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설계도 도입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계약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다. 또 지역,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고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청약당첨률을 높일 수 있다. (1533-3733)



분양가 수
입지·가성
옥석 단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KB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24년 5월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약 1%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대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직상승 중 비 다 갖춘 가려볼까

합리적인 내집 마련을 위한 전략이 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를 건축비, 공사비 등이 급격히 오르 집 마련을 위해 입지가 좋고, 합리 관심이 쏠린다. 이달부터 다음달까 김포, 의정부 등에서 새 아파트 청약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강남 8학군 학교 밀집... '사통팔달' 교통망

서울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서 '래미안 레벤투스'를 내놓는다.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308가구 중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5㎡ 26가구 ▲58㎡ 84가구 ▲74㎡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단지 주변으로 도곡중, 역삼중,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중대부고, 은광여고 등의 강남 8학군 학교가 밀집해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권에 있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교차되는 언주로와 도곡로를 통해 테헤란로·강

남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강남 업무지구(GBD)를 비롯 강남 전역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근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 및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쉽다. 또 강남을 대표하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으로 '힐링숲'과 순환산책로 등이 조성된 매봉산 도곡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가깝고, 주변으로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역삼점 등 대형 쇼핑시설은 물론 강남 최대 상권인 강남역 상권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도곡동 및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예정돼 있다. 상품성도 주목되는 요소다. 메인가로변 커튼월록,



곡선형 문주 등 고급감을 갖춘 단지 외관설계를 필두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분양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곡동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인 데다, 래미안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이 맞물려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래미안 갤러리)에 개관 중이다.

GTX-C, 7호선 연장선 예정... 강남이 '성큼'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벙시티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 의정부 나리벙시티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벙시티' 671가구를 내놓는다.

전용면적 ▲84㎡ 430가구 ▲102㎡ 144가구 ▲115㎡ 56가구 ▲148㎡ 35가구 ▲155㎡ 6가구다. 나리벙시티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로 조성되며, 주거는 물론 미래직업 테마파크 퓨처플라넷을 비롯해 업무와 판매, 공원 등이 함께 개발되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또 도보 거리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위치하며, 단지 서측과 접한 광역 행정타운 2구역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소방서 등이 들어섰고, 추가로 공공기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역 행정타운 1구역도 예정돼 있

다. 단지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에 자리하고, 이를 통해 GTX-C(예정),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도 편리해 서울 강남권 접근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3번 국도, 호국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편의시설로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를 비롯해 금오동·신곡동 편의시설 밀집지가 자리한다.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도 인접하다. 천보산 소풍길, 부용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다.

롯데캐슬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상품성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 세대 지하 세대창고 및 최대 3개의 팬트리(일부 타입)로 선보여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입주자 특화 서비스로 홈케어, 가전렌탈, 출장 세차, 영화 관람 등 롯데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할인혜택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미래직업 테마파크와 행정타운 개발을 통한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고,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입지를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벙시티는 의정부 민락동(정원프라자 2층)에 홍보관을 운영중이며,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금오동에 7월 개관 예정이다. (1551-0555)

체계적 생활인프라... GTX-A 등 호재 잇따라

고양 장항 아테라 금호건설 컨소시엄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계통건설산업·극동건설·금성백조주택)은 올 하반기에 장항지구 B-3블록(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서 '고양 장항 아테라' 84㎡ 760가구를 공급한다.

금호건설이 새 주거브랜드 '아테라' 런칭 이후 고양시에 처음 선보이는 분양단지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의 합성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연과 사람, 공간의 조화로운 물론, 일상의 여유로움이 깃든 주거 공간을 선보여 고객들 삶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항지구는 대지면적 196만여㎡ 부지에 인구 2만7000여명, 건설호수 1만1800여호 등으로 계획된 공공주택지구다.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데다,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호재도 줄을 잇고 있다. 자유로, 제2자유로 이용시 장항IC 및 한류월드IC 등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차량 6분 거리에 3호선 마두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GTX-A 노선인 킨텍스역(가칭)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단지 내 다양한 조경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지상은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하는 등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가격 메리트도 갖췄다. 공공주택지구내 분양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분



양가 상승흐름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 맞물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기대를 모은다. 장항지구내 희소성 높은 민간분양단지로 공급돼 공공분양과 달리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다는 점도 가치를 더한다. '고양 장항 아테라'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1551-1789)

김포 대표 명품단지... 인천2호선 연장선 예정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한양

한양은 오는 8월 경기도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을 통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3058가구 중 50~103㎡, 21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0㎡ 65가구 ▲59㎡ 1150가구 ▲76㎡ 435가구 ▲84㎡ 316가구 ▲90㎡ 24가구 ▲103㎡ 126가구다. '오브센트'는 '결에 둔'이란 의미의 라틴어 '오브'(ob)와 '중심'이라는 의미의 영어 '센트럴'(central)의 합성어로 '새로운 중심에서 생활의 모든 것을 결에 둔 단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양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김포를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북변·결포 지역은 김포를 대표하는 신형 주거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북변·결포 지역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결포지구와 북변4구역이 포함된 북변재개발 및 북변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약 1만4000여 세대의 신축단지가 조성되는 미니신도시급 주거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김포골드라인 결포북변역이 자리한다. 또 향후 결포북변역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신설이 예정돼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며, 인근으로 서울 5호선 연장선 감정역(가칭 계획)과 GTX-D 노선(추진) 노선도 계획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GTX-A 킨텍스역과도 인접해 있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그린스페이스 솔루션팀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아 명품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김포 최대 수준의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일반·특화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해 총 46개소의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실내체육관과 클라이밍, 프라이빗 시네마, 쿠킹 스튜디오, 파티룸, 키즈카페 등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특화 프로그램이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김포시 풍무동과 서울 마곡동에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한양증권 인수전, '부동산 PF·리테일 집중도'서 매력 갈린다

KCGI, 우리투자증권 등 후보 언급 강성부펀드 'KCGI' 유력 후보자 우리투자, 리테일 매력도 떨어져 OK금융, 수익성 악화로 불투명

강소 증권사인 한양증권의 매각이 본격화하면서 KCGI, 우리투자증권, OK금융그룹 등 인수 후보군이 언급되고 있지만 인수 매력도에는 물음표가 찍혔다. 현재로서는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거론된 KCGI, 우리투자증권 등에 이어 OK금융그룹이 한양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OK금융그룹은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위해 증권사 인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풀기 현상을 보이는 증권사 매물이 시장에 나온 만큼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OK금융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실질적인 가능성은 낮은 것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양증권 본사.

/한양증권

으로 전망됐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면서 중장기적인 목표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을 뿐 현재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강소증권사 한양증권의 지분 매각을 공식화했다. 한양학원은 특수관계인 포함 한양

증권 보통주 지분을 약 40.99%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기준 1900억원 수준인 시가총액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했을 시 매각가는 약 1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됐던 인수 후보자는 우리금융지주와 KCGI다. 우리금융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서의 증권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투자증

권은 1조16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자본 기준 국내 증권사 20위권에 속한다. 우리금융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과 추가적인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검토를 언급했던 만큼, 한양증권 인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중론이다.

다만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이 1분기 말 기준 4964억원 수준으로 작은 규모이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력 충원에 집중했던 점 등이 우리투자증권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어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은 인수 계획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양증권은 IB 부문으로 특화돼 있고 최근 부동산 PF 쪽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보니 리테일을 원하는 우리투자증권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만약에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인수하게 될 경우라면 종투사나 초대형 IB까지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증권사라

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KCGI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곳으로 생각된다"며 "KCGI는 자산운용사 인수 경험도 있고, 증권업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포스증권을 인수하면서 이미 증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황이다. 다만 KCGI는 한양증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증권업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투자증권은 은행지주를 끼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PF와 같은 분야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데, 한양증권은 올해 부동산 PF 관련 인력들을 강화했다"며 "이미 포스증권을 인수한 만큼 지점망이 많고, 리테일 분야를 넓힐 수 있는 증권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기준 한양증권의 지점은 서울(2), 인천(1), 경기(1) 지역에 총 4곳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인도 ETF, 증시 호조로 韓 투자자들 주목

인도 증시, 8만선 유지 상승세 지속 니프티50 지수 상승, ETF 수익률 급등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인도 증시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친시장과 정권과 '세계 1위 인구 대국'이라는 기반을 가진 인도 시장을 두고 나오는 전망들도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인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인도 증시는 최근 거래일인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뭄바이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인도 '센섹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6% 오른 8만 0716.55포인트, 인도국립증권거래소의 벤치마크 지수인 '니프티50 지수'는 0.11% 오른 2만4613.0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이러한 인도 증시의 성장은 14억 명 인구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친시장과인 모디 총리의 세 번째 연임에서부터 비롯된다. 지난 6월 4일 인도 증시는 인도 총선 여파로 장중 한 때 7만포인트 선까지 하락했지만 모디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꾸준히 상승해 8만



/유투이미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 증시 호조에 국내 인도 테마 ETF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ETF를 통해 인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인도 관련 ETF는 7개다.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니프티5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인도Nifty50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TIGER 인도니프티50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KOSEF 인도Nifty50

(합성) 다섯 가지와 테마형인 ▲KODEX 인도타타그룹 ▲TIGER 인도빌리언 컨슈머 두 가지가 있다.

자산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개, 삼성자산운용이 3개, 키움투자자산운용이 1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7개 ETF 모두 상장 이후 수익률이 올랐으며, 실례로 상장된 인도 ETF 중에서 가장 늦게 상장한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ETF'의 순자산은 상장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 10월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의 경우는 지난해 4월 21일 상장 후, 16일 종가 기준으로 86.59%의 수익률을 올린 상태다.

또한 하반기 인도 시장을 두고 나오는 전망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돋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인도의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인도의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에 기인한다. 지난 3월 발표된 인도의 구매관리자 지수(PMI)도 60.5를 기록하며 인도의 경기 부양 상태를 나타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계열사 통폐합 등 사업·구조 개편에 소액주주들 "명백한 기만 행위" 반발

두산 합병에 소액주주 불만 확산 두산밥캣 인적 분할해 흡수 합병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 교환

두산그룹이 경영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계열사 통폐합 등 사업 재편에 나선 가운데, 기존 주주들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열사 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압도적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종목토론펙 등에서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계열사 합병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그룹의 경영방식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역행하는 형태", "장기 투자한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 "소액주주 지분 빼기가 밸류업인가" 등의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 11일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에 100% 완전자회사로 흡수 합병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 합병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상장사로 지위를 유지하지만, 두산밥캣은 상장 폐지된다. 상장 폐지될 두산밥캣 주주들은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받는다.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룹 입장에서 영업이익의 1조원이 넘는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을 합병함으로써 설립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를 안정적인 첨단제조사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두산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할합병에



/유투이미지

다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실상 없다. 주주들은 흑자 회사인 두산밥캣의 주식 1주를 설립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 없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0.63주로 교환하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도 이 같은 합병 결정에 대해 기존 두산밥캣 투자자 입장에서선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두산밥캣의 해외 주주를 중심으로 동사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과 배당에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주주 간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도 사업 리밸런싱(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했다. 이는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원관희 기자 wkh@

KB자산운용, ETF 브랜드 'RISE'로 탈바꿈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 슬로건

KB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명칭을 'KBSTAR'에서 'RISE'로 일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부터 KB자산운용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증권사(MTS, HTS) 등 모든 채널에서 KB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명은 'RISE'로 바뀐다. 현재 KB자산운용이 상장한 ETF는

총 109종이다. 예를 들어 대표 상품 중 하나인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로 되는 식이다. KB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달 28일 ETF 브랜드명을 'RISE'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RISE'의 슬로건은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Rise Tomorrow)'다. 개인투자자들의 더 건강한 연금 투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KB자산운용은 올해 초 김영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ETF 사업의 리뉴얼을 준비했다. 브랜드 컨설팅 7개월 만에 새롭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를 꾀하면서 8년 만에 ETF 브랜드명을 바꿨다. 브랜드 변경은 KB자산운용 ETF 사업 방향과 브랜드 전략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연금계좌 등에서 노후자금 투자에 나서 는 개인투자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ETF 상품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엄마의 사랑으로 구워낸 모아뜰 누룽지



- ✓ 100% 국내산 원료
- ✓ 200kcal 이하의 저칼로리
- ✓ 황동판에 구워낸 전통의 맛
- ✓ 50g 한팩으로 간편하게
- ✓ 술 마신 다음날 속풀이로



누룽지탕 & 송늬



누룽지 라면



누룽지 김치죽



누룽지 백숙



간편한 식사



레저 활동시



온가족 간식



NAVER

▼
Q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3년간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고용부, 정부 관계부처·경제단체와 업무효율 향상, 초저출생 위기 극복 정부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추진 내달 30일까지 신청... 11월 선정

정부와 경영계가 근로자의 유연근무나 일·육아 병행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정책금융 우대 등 각종 파격 혜택을 부여한다. 추후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에 정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나선 이유는 유연근무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업무효율 향상 등 긍정 영향을 주는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5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것

으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기로 하고 혜택도 대폭 늘렸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

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곳 내외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회에는 정부·경제단체·수행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유예, 금리우대 등 혜택 외에도 고용장려금 심사시 가점, 가족친화인증 가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또 대출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추후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세제 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나 중대재해 기소의견 송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

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존에 고용부 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 ~ 8월 30일까지로,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기관이 함께 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습기, 제품별 성능 최대 1.7배 차이 있어

소비자원, 9개 제품 시험평가 캐리어·LG전자 ‘상대적 우수’ 일부 제품, 광고와 실측치 달라

제습기 9개 제품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제습능력 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습능력에서는 캐리어, LG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의 품질, 경제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우선 24시간 동안 제습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제습능능은 최소 12.2리터~최대 21.1리터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다.

캐리어(CDHM-C020LUOW), LG전자(DQ203PECA) 등 2개 제품이 20리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씽크에어(Thinkair DL30F) 제품은 12.2리터로 가장 낮았다.

보아르(VO-DE002), 씽크에어 2개 제품은 실측치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표기된 1일 제습량 수준이었으



백승일 한국소비자원 전기전자팀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평가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광고한 제습량과 실제 측정값에 차이를 보여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나 더 높은 용량을 제습할 수 있다고 제품에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위니아(EDH19GDWA(A))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제습량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실측치는 92% 수준으로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위닉스(DXJE193-LMK)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로 작동 시 제습량 실측치(12.0 l)가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19.0 l) 보다 적어 표시치 수준의 제습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모드로 작동이 필요했다.

제습성능을 적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6~28평형 수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시 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을 고려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풍량 조건에서 소음은 위니아, LG전자 2개 제품의 소음이 50데시벨(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습효율은 삼성전자(AY18CG7500GGD), LG전자, 위닉스, 캐리어, 쿠쿠홈시스(DH-Y1652FNW)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전력을 월간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평균 8000원 수준으로 삼성전자 제품이 7000원(262W)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 제품이 1만원(363W)으로 유지비용이 가장 높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부발전, 업무용 피시 ‘위북’ 도입

국산 가상기계 소프트웨어 탑재

한국서부발전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가격경쟁력과 보안 기능을 높인 업무용 피시 ‘위북(We-Book)’을 도입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위북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시연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업무용 피시 ‘온북’을 보완해 위북을 개발했다. 위북과 온북은 출장·재택 근무 환경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같으나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온북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각각 가상기계(VM) 소프트웨어, 고비용 외국산 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반면, 위북은 가상데스크톱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국산 가상기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30~40%가량 줄이고 보안 기능도 고도화했다.

위북 개발은 외국산 운영체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개방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위북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시연회’를 진행했다. 위북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가격경쟁력과 보안 기능을 높인 업무용 피시이다. /한국서부발전

형 오픈스(OS)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부발전은 여기에 자체 기술을 녹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AI·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22개 기업·기관과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17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컨퍼스에서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22개 기업·기관과 ‘기술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핵심 신기술 분야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선호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결과(2023~2027년)’에 따르면, 분야별로 인공지능은 1만2800명, 클라우드는 1만8800명 등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과 22개 기업

은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특히 협약기업들은 임직원이 산업 현장 교수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한다. 폴리텍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에도 힘쓴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준 14개 캠퍼스 18개 학과에서 695명의 인공지능·클라우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2개 학과 신설·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정수 캠퍼스에 클라우드컴퓨팅과를 신설하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AI응용소프트웨어과는 커리큘럼 재 정비와 신규 장비 도입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연간 74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임준건 폴리텍대학 기획훈련이사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석탄분야 中소 업의 전환 지원

이피아이티 등 최종 12개社 선정

한국동서발전은 탈석탄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업의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오후 한국표준협회에서 업의전환 지원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석탄발전분야 중소기업에 전문가 진단을 통해 성장사다리형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초보기업에는 산업 전환 아이템 선정, 도약기업에는 기술 및 제품 개발, 성장기업에는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동서발전은 에너지전환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석탄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이피아이티 등 최종 12개사를 선정했다.

동서발전은 올해 업의전환 지원사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 BP사례 발굴을 통해 타기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피아이티 관계자는 “전년도 초보기업으로 참여해 주생산품인 전기집진기 필터를 화력발전소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로 새로 진입했다”며 “올해는 도약기업이 돼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배 동서발전 동반성장실장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피할 수 없는 에너지산업의 당면과제”라며 “동서발전과 중소기업이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업의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DJ 풀파티에 요트체험, 안마의자 까지... '호캉스' 레벨 UP

(호텔+바캉스)

금호리조트 수캉스 프로그램
제주서 '오션풀 DJ 풀파티' 개최
동영선 '스노쿨링 요트 프로그램'

한화엔드리조트 브리드호텔 양양
객실에 '아이디얼 포 맨' 제품 비치
롯데호텔 서울 안마의자 등 갖춰



브리드호텔 양양 객실 내 비치된 '아이디얼 포 맨' 상품. /한화엔드리조트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전경. /금호리조트

휴가철을 맞아 호텔업계가 앞다퉀 테마 있는 바캉스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험 소비'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호텔을 찾는 소비자들 늘면서 호텔 업계는 주제가 있는 숙박 상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 수캉스(水+바캉스), 뷰캉스(뷰티+바캉스), 웰캉스(웰니스+바캉스) 등 신조어를 활용해 테마별 호텔 상품을 홍보하며 휴가철 맛이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텔업계가 테마 중심의 숙박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경험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 소비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그와 관련된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를 일컫는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5대 소비문화 현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발간하여 경험 소비 시장 현황을 발표했다. 저성장을 경험한 젊은 세대가 경제 핵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소유보다는 경험에 가치를 두는 소비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캉스...계절 특성 반영해 물놀이 고객 경험 서비스 제공

먼저 호텔업계는 계절 특성에 맞춘 고객 경험을 살리기에 나섰다. 금호리조트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름 방학 수(水)캉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아쿠아나 시설과 야외 오션풀을 겸비한 금호제주리조트는 '오션풀 DJ 풀파티'를 개최해 물놀이와 더불어 디제잉 공연을 진행한다.

금호화순스파리조트는 파도풀, 아쿠아플레이, 수영장, 분수대, 노천탕 등 야외 물놀이 시설을 개장해 다양한

고객 만족 경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는 '섬머스노쿨링 요트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여름 레저 취미 활동의 경험을 제공한다.

금호리조트 관계자는 "여름 방학 시즌을 맞아 휴가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수캉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강력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 금호리조트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물놀이로 최적의 수캉스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뷰캉스, 웰캉스...고객 미용과 건강까지 챙기는 호텔

호텔이 바캉스 고객의 미용과 건강도 지킨다. 한화엔드리조트의 브리드호텔 양양은 CJ올리브영 1등 제품인 남성 뷰티 브랜드인 '아이디얼 포 맨'

제품을 객실과 사우나 편의용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건강식품 전문 기업 '웰스벨런스'와 협업해 다이어트와 영양 제품도 제공한 바 있다.

롯데호텔 서울은 전통 침대, 안마의자, 정신 건강케어 기기를 갖춘 웰니스 전용 객실을 오픈해 고객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다. 웰캉스는 건강과 바캉스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수요층을 뜻한다.

롯데호텔 서울 관계자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 고자 웰니스 객실 및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오뚜기 '진앤지니 진라면중심' 진라면 서포터즈 발대

종합식품회사 오뚜기는 전날 경기도 평택시 오뚜기라면에서 진라면 서포터즈 16기 '진앤지니(JIN & JINY)' 진라면중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고 17일 밝혔다.

'진앤지니 진라면중심'은 진라면을 사랑하는 대학생 서포터즈(휴학생·유학생 포함) 16기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균형 잡힌 맛으로 라면 시장의 무게중심에 위치하는 진라면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발대식은 ▲진라면 브랜드 및 오뚜기라면 역사 소개 ▲서포터즈 활동 안내 ▲오뚜기라면 연구소장 환영사 ▲팀별 기획안 발표 ▲오뚜기 연구원의 라면 이야기 강의 ▲오뚜기라면 공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선 기자



롯데리아 "불고기포텐버거 맛보세요"

롯데리아가 17일 서울 용산구 롯데리아 숙대입구역점에서 신제품 '불고기포텐버거' 출시를 알리고 있다. 롯데리아는 대표 메뉴 강화 캠페인을 통해 신메뉴인 '불고기포텐버거'를 18일 출시, 한정판매한다. /손진영 기자 son@

“오싹한 공포체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로 더위 이겨요”

롯데월드, 이색 실내체험

공포체험 '귀담: 폐가의 비밀'
손님이 폐가속 원혼해방 미션 수행
민속박물관서 한국역사-오컬트 만남
단서 활용 흔적찾기, 오컬트 체험 등

롯데월드에 무더위와 장마를 피해 시원하게 실내 콘텐츠를 즐기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오싹한 공포 체험, 몰입형 오컬트 체험 등 여름에 어울리는 콘텐츠부터 민속박물관에서의 문화유산 체험·전시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로 변한 아이스가든까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재미로 무더위를 날려 줄 롯데월드의 이색 실내 체험을 소개한다.

◆폐가에서 오싹한 공포 체험

먼저, 더위를 날려버릴 오싹함을 원한다면 공포 체험 '귀담(鬼談): 폐가의 비밀'이 제격이다. 지난해 여름 첫 오픈 후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호러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 올해에도 재오픈했으며, 오픈 직후 이용 예약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워크루 방식으로 진행되며, 곳곳에 출몰하는 귀신과 으스스한 공간들이 극강의 호러와 스릴을 자아낸다. 귀신이 나오는 장소를 찾아 원혼을 해방시키는 '고스트 헌터'가 실종된 기자로부터 의문의 이메일을 받고 어느 폐가에 찾아간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며, 손님은 고스트 헌터가 되어 폐가 속 원혼을 해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한다. 11



매직아일랜드 '귀담(鬼談)'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



크리스마스 포토존에서 고객들이 촬영하고 있다. /롯데월드

월 17일까지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민속박물관에서 만나는 한국 오컬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역사와 오컬트의 기묘한 만남이 펼쳐진다. 몰입형 오컬트 체험 '불청객'은 풍수지리, 민간 설화 등 전통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민속박물관의 역사학자이자 역사속 미스터리를 파헤치던 삼촌이 돌연 사라지면서 삼촌의 뒤를 이어 역사학자

가 된 '나'는 삼촌이 남기고 간 단서를 뒤쫓게 되는 스토리다.

고구려관부터 통일신라관까지 이어지는 체험으로 각 4곳의 공간에 마련된 단서를 활용해 흔적 찾기 미션과 오컬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및 민속박물관 이용객은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민속박물관 입구의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민속박물관은 '불청객' 외에도 특별

전시 '폴 인(仁) 러브'를 11월 3일까지 진행한다. 조선시대 유물 전시 및 전통 의상 포토존, 느리게 가는 편지 등의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배려와 사랑을 배워볼 수 있으며, 다양한 상설 전시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온 가족 여름방학 나들이 코스로 추천한다.

◆여름에 만나는 크리스마스

사계절 내내 시원한 아이스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가든은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으로 변신한다.

먼저, 휴게공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한 포토존을 마련했으며 손님들은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지참해 멋진 인증샷을 남겨볼 수 있다. 또한 인공 눈기계를 이용해 아이스가든 대기 공간에 눈이 내리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연출하며,

매일 오후 4시에는 겨울 감성 가득한 캐롤과 댄스 음악이 울려 퍼져 마치 겨울이 찾아온 듯 시원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매일 오후 8시 30분에는 빙판 위에서 겨울 콘셉트의 야간 포토타임이 진행되며, 다양한 소품을 착용해 나만의 재미난 설정샷을 남길 수 있다.

롯데월드는 여름철 이용 가능한 다양한 할인 혜택 또한 선보인다. 오는 31일까지 대학생들을 위한 시원한 할인 패키지를 판매한다. 대학(원)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이용 가능한 패키지로 어드벤처 종일권 35% 할인, 인생네컷 촬영권, 아이스 딸기 탕후루가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PC 파스쿠찌 SKT T멤버십 회원 그라니따 50% 할인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SKT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그라니따 50% 혜택을 제공하는 'T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단 하루 실시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T 멤버십 앱을 통해 진행되며, T 멤버십 회원이라면 등급에 상관없이 그라니따(R) 50% 혜택 쿠폰을 1인당 최대 2매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대상 음료는 그라니따(R) 16종으로, 올해 새롭게 선보인 '멜론젤리 그라니따', '자두 젤리 그라니따', '피치 요거트 젤라니따'와 함께 매년 여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수박 그라니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운로드 받은 쿠폰은 오는 21일까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쿠폰은 결제 1건당 1장만 사용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5兆 시장 잡아라”... 세븐브로이, 위스키 제조로 재기 도모

캐스크 수입사 월로우드와 ‘맞손’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 13.1% 늘어 엔데믹 이후 수제맥주 입지 좁아져 지난해 매출액 62% 줄며 하락세

국내 수제맥주회사 세븐브로이가 위스키 시장에 진출하고 종합주류회사로 거듭난다. 수제맥주에 이어 와인 하이볼, 위스키 제조까지 사업을 확장한 가운데, 약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븐브로이는 캐스크 수입 기업 월로우드와 ‘위스키 생산 및 캐스크 확보’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월로우드는 양사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위스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국내 위스키 제조 ▲오너캐스크 사업 ▲위스키 체험 투어 ▲캐스크 대여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경 세븐브로이 전무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주정 성분 분석과 현지 조주기사 및 위스키 애호가 대상으로



세븐브로이와 월로우드 관계자들이 ‘위스키 생산 및 캐스크 확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세븐브로이)

진행한 테스트에서 월로우드의 긍정적인 평가가 업무 협약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위스키 출시까지 나아가야 할 길이 많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세계적인 위스키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로우드는 미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오크 캐스크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에 거처를 확보하는 등 전세계 와인리에서 최고급 캐스크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2021년 익산 신공장을 건설 초기부터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생산을 위해 증류 장치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증류주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위스키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위스키 사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3만586t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위스키 수입량이 3만t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2019년 약 2만t에서 2020년 1만5923t과 2021년 1만5662t으로 줄었다가 2022년 2만7038t으로 급증해 지난해 3만t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731t이 수입됐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국내 위스키 시장 규모가 2020년 2조6796억원에서 2021년 3조2051억원, 2022년 4조9461억원으로 연평균 36%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5조원 후반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세븐브로이는 현재 하이볼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 착안해 와인으로 만든 하이볼 ‘와인 하이볼’도 개발했다. 사측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와인 하이볼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시 전이며 유통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븐브로이는 2003년 수제맥주 면허 획득을 시작으로 2011년 중소기업 최초로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획득했다. 코로나19시기에 흡술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수제맥주가 인기를 끌었지만, 엔데믹 이후 기존 회식 문화가 부활

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제맥주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세븐브로이는 2020년 72억원이었던 연간 매출액 규모가 2021년 402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억원을 밑돌던 것이 118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2022년엔 성장세가 지속되진 않았으나 매출액 326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제맥주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성장세는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세븐브로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23억원을 기록했다. 또 적자전환하면서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91억원을 기록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다양한 수제맥주가 시장에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과도한 컬래버로 피로감만 자극하며 인기가 오래가지 못했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정착하는 것은 ‘맛’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위스키 사업도 본질인 맛과 향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색조 브랜드로 日 정조준

日 ‘메가 코스메랜드’서 제품 알려 글린트, 신제품 ‘틴트 글로스’ 선봬 프레시안, 쿠션 등 주력상품 내세워

LG생활건강이 일본 뷰티 시장에서 색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3~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메가 코스메랜드 2024’에 자사 색조 브랜드 ‘글린트’와 ‘프레시안’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메가 코스메랜드 2024’는 일본 온라인 쇼핑몰 큐텐이 주최한 오프라인 행사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일본 도쿄 최대 국제 전시장인 ‘빅사이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글린트와 프레시안은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했다.

글린트는 대표 제품인 ‘하이라이트’를 비롯해 틴트, 글로스, 플러퍼 등 입술 메이크업 기능을 한 데 담은 신제품 ‘틴



지난 13~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메가 코스메랜드 2024’에서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린트’ 부스에서 줄을 서고 있다.

(LG생활건강)

트 글로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오는 8월 1일 출시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주력 제품인 ‘에그라이크 쿠션’과 지난 6월 출시한 ‘글래스라이크 립 젤리’를 내세웠다. 또 프레시안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달걀 이미지’를 활용해 감각적인 공간을 꾸몄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글린트와 프레시안 부스를 찾은 방

문객은 약 2만 명 이상이다. 준비됐던 샘플 제품 1만여 개는 조기 소진됐고, 일본 아이돌, 틱톡커, 뷰티 인플루언서 등이 글린트와 프레시안 제품을 시연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오는 8월 일본 도쿄에 위치한 백화점인 ‘미츠코시 긴자’에서도 팝업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에이피알, PDRN·PN 신소재 사업 진출

자체 생산 위한 시설확보 집중

글로벌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PDRN과 PN 관련 신소재 사업에 진출한다고 17일 밝혔다.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과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은 연어나 송어의 정액이나 정소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해 만든 물질이다. PDRN과 PN은 모두 조직 재생 및 항염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목적뿐 아니라 피부 재생, 항노화 등 미용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PDRN과 PN 자체 생산 및 해당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우선 자체 생산을 위한

시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게 될 해당 시설은 약 4000평 규모 부지에 세워져 건축 면적만 1500평에 달할 전망이다. 에이피알은 연내 공장 준공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 본격 가동과 시제품 출시도 이뤄질 계획이다.

에이피알은 PDRN과 PN 사업을 통한 ‘PDRN 밸류체인’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에이피알은 소재 공급 사업으로 PDRN 및 PN 관련 제품 제조사에 소재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사 화장품 브랜드인 ‘메디큐브’에서 PDRN을 함유한 앰플이나 크림을 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에이피알은 피부 관리뿐 아니라 헬스케어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정하 기자

롯데시네마, MLB 경기 단독 생중계

보스턴 레드삭스 vs LA 다저스 경기

다양한 콘텐츠 경험의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롯데시네마가 2024 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이하 MLB) 경기 중계를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보스턴 레드삭스 vs LA 다저스’ 경기를 극장 단독 생중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최초 극장의 대형 스크린으로 선보이는 이번 경기는 경기를 직관하는 듯

한 경험을 제공하여 야구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모든 야구 선수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MLB는 세계 최고의 프로 스포츠 리그로서 압도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국내 최초 극장에서 중계되는 이번 경기는 야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 3위인 ‘보스턴’과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1위인 ‘LA 다저스’의 불꽃튀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어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보스턴’은 창단 이래 월드 시리즈 우

승 9회, 리그 우승 14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활약과 밀리지 않는 전력으로 경기를 리드하여 탄탄한 팬덤을 자랑한다. 특히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보스턴이 치열한 야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좋은 순위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LA 다저스’는 메이저리그의 대표적인 인기 구단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찬호, 최희섭, 서재응, 류현진 등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활약함에 따라 관심도와 인지도가 높다. 또한 현시대 야구계 최고의 슈퍼스타로 손꼽히는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에 속해있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활약에 이목이 쏠린다.

/신원선 기자

홍콩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와 ‘FL-091’ 글로벌 개발 계약 체결

SK바이오팜이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분야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홍콩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와 저분자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FL-091’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계약금과 개발 및 매출액 마일스톤을 포함해 5억7150만 달러에 달한다.

‘FL-091’은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다양한 유형의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수용체 단백질인 NTSR1(뉴로

텐신 수용체1)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차세대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225(225Ac)를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의 방사성 약물접합체(RDC) 프로그램들에 대한 일부 우선협상권도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은 방사성의약품, 신규 모달리티 등을 연구개발해 항암 치료제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빅 바이오텍’으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팜은 현재 중추신경계 질환 시장에서 자체 개발한 뇌전증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내놓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정하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중기부-한경협, 협력체계 구축... 동반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협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일, 범죄 피해자 후원금 1000만원 전달

에스오일은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경찰서에서 '마포구 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식'을 갖고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KB금융그룹, 12개사 'KB스타터스 싱가포르' 선정

KB금융그룹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국내 스타트업 12개사를 'KB스타터스 싱가포르'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한국마사회는 재활승마 대중화와 사회적 가치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부산, 80명 신규 채용... 노선취항 등 대비

에어부산은 지난 15일 에어부산 사옥에서 80여명의 신입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사식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은 ▲캐빈승무원 ▲운항승무원 ▲정비사 세 직군으로, 2024년 하반기 예정된 부산~발리 노선 취항 등 사업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이다.

LG전자, '2024 글로벌장애청소년 IT 챌린지' 예선 개최

16개국 장애청소년 한자리... AI시대 사회진출 돕는다

온·오프라인 병행... 600명 참가 "IT 역량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LG전자가 전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인공지능(AI) 역량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LG전자는 16~17일 '2024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예선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접근성도 높였다.

GITC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사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2011년부터 진행해 온 대회다. 올해는 LG와 보건복지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GITC 조직위원회, 필리핀 국가장애위원회(NCDA)가 주관한다.

지금까지 13년간 총 40개국에서 5000여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했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예선 대회에 참가한 한국 장애 청소년들이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 평가'를 진행 중인 모습. /LG전자

다.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참가국이 확대되며 글로벌 대회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총 16개국에서 600명이 넘는 장애 청소년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챗GPT, MS 코파일럿, 구글 제미니 등 생성형 AI 기술 활용 능력이 새로운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 최근 생성형 AI가 글로벌 I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데 따라 글로벌 디지털 인재로서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예선을 통과한 장애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3~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한다. 대회 종합 1등 및 종목별, 장애 유형별 성적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한국장애 청소년의 IT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LG전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협력해 교육에 참가한 장애 청소년들에게 다방면의 IT 역량 강화 활동을 제공한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장애 청소년들이 장애와 국경의 벽을 넘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필요한 IT 역량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100년간 주신 사랑 보답"... 하이트진로, 지역·이웃 나눔활동 활발

주류업계 최초 100년 기업 조손가정·자립준비청년 등 후원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하이트진로는 100년 동안 받은 소비자 사랑에 보답하고자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 나눔 후원'을 100주년 창립기념일에 맞춰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소외계층 대상 나눔 활동과 별개로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자립준비청년과 조손 가정(조부모 위탁아동가정)까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으로 나눔 활동



하이트진로는 16일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왼쪽)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정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을 확대했다.

이에 앞서 전날 오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나눔 활동을 주관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정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국가유공자 가정, 자립준비청년, 조손 가정(조부모 위탁아동가정) 각 100가구씩 총 300가구에 대상별 가장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구성된 나눔키트를 전달한다. 국

가유공자 가정에는 생필품과 식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가전용품 등 첫 살림에 필요한 품목을 전달한다. 조손 가정에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투자중인 농식품기업 '팜조아'의 먹거리 키트를 후원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진심을 다하다'라는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아래 ▲명절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의 날 복지관 대상 지원 ▲쪽방촌 거주민 여름나기 지원 ▲연말 지역 아동센터 용품 지원 ▲지역 사회복지관 통한 장애인,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 ▲김장철 소외 이웃 김장 지원 등 취약 계층 대상 나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지역 고등학생 학업 지원

포스코 등대장학생 233명 선발

포스코청암재단이 포항·광양지역 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에 나선다.

포스코청암재단은 포항·광양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포스코 등대장학생 233명을 선발하고, 16일과 17일 광양 문화예술회관과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각각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특수·대안학교인 포항 명도학교, 한동글로벌학교, 광양 햇살학교까지 선발 대상을 확대해 포항 지역 소재 29개 고등학교, 광양지역 소재 10개 고등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했다.

포스코 등대장학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포항·광양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김태영 행정실의그룹장(앞줄 왼쪽 일곱번째부터), 광양시 김기홍 부시장, 포스코청암재단 오영달 상임이사가 16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광양 지역 등대장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역 고등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해 온 장학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증서수여식에는 학부모를 비롯해 포항·광양 시청 및 시의회,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증서수여식에서 포스코청암재단은 장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학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진학 전문강사 특강과 함께 유료 진학 멘토링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전신인제철장학회가 설립된 1971년부터 지역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양성윤 기자 ysw@

부음

▲연만희(전 유한양행 회장·유한재단 이사장, 향년 94세)씨 별세, 심문자씨 남편상, 연태경(전 현대자동차 홍보 임원)·태준(홍플러스 부사장)·태욱씨 부친상, 이상한(한양대 명예교수)씨 장인상, 문선미·최난희씨 시부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3410-6917

▲이준재(향년 84세)씨 별세, 김영주씨 남편상, 이연연·이정민(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8시,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9일 오전 9시, 053-620-4242

▲장정선씨 별세, 김성배·김승민·김승희씨 모친상, 박호윤(전 한국프로골프협회 사무국장·전 일간스포츠 기자)씨 장모상 = 17일 오전,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02-2227-7500

▲이현영(전 평촌고 교장·창덕여고 총동문회장·향년 84세)씨 별세, 정혜선·정근창씨 모친상 = 17일 오전 6시 10분,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31-219-4591

사실상 분당 된 국민의힘

(分黨)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국민의힘은 이미 '사실상 분당' 상태가 됐다.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이후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 심기일전하겠다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전당대회는 분당(分黨)대회가 돼 버렸다.

실제로 분당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분당을 주도하고 새롭게 세력화할 정도의 그릇도 국민의힘에는 없어 보인다. 어쩌다 국민의힘이 화끈하게 분당도 하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을 맞게 됐을까.

총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하겠다고 한 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나선 것부터 갈등은 예고됐다. 본인의 정치적 세력을 만들기 위해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교감으로 당을 내줄 수 없다며 나선 원희룡 후보는 애초에 서로 결이 달랐다.

이들의 갈등은 말싸움으로, 감정싸움으로, 폭로전으로 번졌고, 같은 당의 당원들끼리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 울사들 간의 싸움은 법적 지식도 풍

부해서 추후 독화살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도 댓글팀 운영 문제는 그냥 덮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무능'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폭주를 막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의 모든 역량은 '이재명 방탄'에 맞춰져 있다. 방탄을 위해 고(故) 채상병 특검을 밀어붙였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 다시 꺼냈다. 이재명 전 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두 장짜리 탄핵청원서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소환할 방침이며, 23개 기관에는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탄핵청원서에는 심지어 대북확성기 사용도 대통령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다.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사실 총선 직후 이미 예견됐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압승 결과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는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겸손함을 보였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민주당은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자리를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국회의 관련

나 법도 무시하고 법제사위를 비롯한 주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선택했다'를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로 해석했고, 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란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공감은 가지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우리 국민 가운데 여러 설문조사에 양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하는 적극 지지층은 30~40%이며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국민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상태여서 30~40%를 차지한 쪽이 모든 것을 휘두르는 액 더 독(Wag the dog)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부장 yhj@metroseoul.co.kr

도랑 쳐야 가재 잡는다



김 정 산
(금융부)

14년 전 인도와 네팔에서 1년 가까이 지냈다. 주로 인도에 있었고 네팔은 비자 갱신을 위해 2개월간 머물렀다. 씨티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만 가지고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네팔까지 기차와 버스에 몸을 맡긴 채 5일 밤낮을 이동했다.

인도에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중간 규모쯤 되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도 현금만 취급했다. 인도루피(INR)와 네팔루피(NPR)를 적당히 섞어 한화 150만원정도를 인출했다. 당시 인도에서는 50만원이면 4인 가구가 한달은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다. 워낙 큰 액수인 만큼 잘 때

도 고무줄로 뽕뽕 산 뭉치돈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잤다.

출퇴근을 위해 공항철도를 타는 일이 잦았다. 매일 출근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을 만날 수 있다. 그중에는 14년 전 나처럼 현금다발을 가진 외국인 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의아했다. 구멍가게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나라에 왜 현금다발을 챙겨서 오는 걸까?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결국 인프라 부족에 있다고 본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모바일 QR결제 공통규격을 마련했다. 카드사별 QR코드 규격이 모두 다르니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국제 표준인 EMVCo의 QR규격을 따른 만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QR결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도 함께 발표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언젠간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진짜 시급한 것은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 보급이다. 각종 'OO페이'의 등장으로 결제 편의성을 높여줄 도구가 신용카드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추세다.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은 NFC단말기 보급률이 100%에 가깝다. 현금을 선호하기로 유명한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부터 NFC단말기를 출시했고 최근 확산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전해진다.

QR결제 가맹점을 확보하면서 NFC단말기 보급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행에서 소비는 필수 요소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선 NFC단말기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필수다. 도랑 쳐야 가재도 잡는다고 했다. 한국의 오프라인 결제 시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음 6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인다. 48년생 내가 놓은 땀에 내가 걸리니 조심해라. 60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72년생 직장인은 특히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84년생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 오늘은 행복.



37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49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법이다. 61년생 동분서주해 봐야 별 이익은 없다. 73년생 즐거움 일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85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니 꾸준히 노력해라.



38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 50년생 참고 기다리는데 고통받던 구설수가 해결된다. 62년생 오늘날만큼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라. 74년생 평소의 준비가 역량을 크게 한다. 86년생 오늘은 길을 나서면 우연한 행운이 온다.



39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마음이 쓰인다. 51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지워 버린다. 6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해야 한다. 75년생 마음에서 뿌린 대로 거두니 정직하게. 87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40년생 애완견을 버리면 유기견이 되는데 인생도 같은 이치. 52년생 변화가 있어도 하던 일을 마무리. 64년생 과거 인맥으로 이익을 얻는다. 76년생 동료들과 재물로 인한 경쟁이 생겨도 결과는 서로 좋다. 88년생 헛된 희망이 눈을 가린다.



41년생 고집을 피우면 외면하니 적당히. 5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감사하다. 65년생 보이스 및 피스에 조심. 77년생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게 되니 투자는 하지 말 것. 89년생 실력이 없으면 직장에서 불평이 많게 되니 불평보다는.



42년생 귀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서명은 신중하게. 66년생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78년생 많이 힘들지만 성의를 다하면 행운이 온다. 90년생 양피를 만나 지식적으로 도움을 얻게 되니 서투르 마무리한다.



43년생 개척자의 길은 멀고도 향하다. 5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다. 67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79년생 책임진 일을 주변 도움으로 해결한다. 91년생 젊을 때는 비슷하지만 시간이 가면 서로 차이가 나게 되니.



44년생 사는 날까지 돌리려도 두들겨야만. 56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68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수가 적다. 80년생 도전해라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 없다. 92년생 친구의 이혼에 관여하면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45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 57년생 비가 오고 바람 불어대니 비옥한 땅이 되겠다. 69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다. 81년생 조심할 부분이 생김 백마 타다 자칫 떨어진다. 93년생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표현을.



4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상황. 58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답을 수 없다. 70년생 백만 송이 장미가 발아래 깔려 있다. 82년생 기본 나빠 이직을 하려면 소나기 피하러다 우박 맞는 격된다. 94년생 사랑하며 사는 오늘이 행복한 날.



47년생 매매에 어렵던 문제가 풀린다. 59년생 문서가 아름다운 전망으로. 71년생 주변 지지와 배려가 힘이 된다. 83년생 기다리던 금전 문제가 풀리는데 차량은 조심하도록. 95년생 될 성 나무는 남이 알아보니 탄생한 아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



김상회의四季 그리운 푸바오

확실히 마음에 희망을 주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돌맹이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위로를 주고 웃음을 줬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아가 푸바오다. 푸바오를 보며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중국으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간 공주 푸바오는 지금 국제 협약에 의한 것이니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중국으로 간 푸바오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의혹이 현실로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등과 이마 부분에 탈모가 생기고 털 색깔이 변하고 살 색도 변하는 푸바오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온다. 그뿐이 아니다. 유출된 사진을 보면 누군가 푸바오를 맨손으로 만지고 먹이를 주는 모습도 있다. 아가 푸바오에게 절대적 애정을 보내는 사람들이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영상을 보면 푸바오가 거주하는 방사장은 시멘트 바닥이고 공간도 무척 좁다. 야외인데도 휴를 찾아보기 힘들다. 나무 타고 오르며 놀기를 즐기는 푸바오에게는 좋은 환경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휴과 풀이 많은 곳에서 나무를 오르내리면서 즐겁게 보냈었다.

먹는 것도 품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푸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얼마 전 중국연구센터가 공주 푸바오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걱정이 덜어지는 건 아니다. 푸바오를 향한 마음이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푸공주는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살아갈 힘을 선사해준 행복의 샘물 같은 존재였다. 푸바오공주를 둘러싼 의혹이 나오지 않아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길, 아가 푸바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어드의 열정과 열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3				6
				8		1
	3	6	8			
	3					2
	2			6		
6						1
	7	4	1			
9		1				1
5			3		9	4

7		1				2	9
5							
	9	7		3			
			8				2
	7	4		6	1		
8			9				
	8	4		5			
4	9			3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어드의 열정과 열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7	6	2	8	8	1	9	9	
1	8	8	9	9	1	7	2	6
9	9	1	6	7	2	1	8	8
8	1	6	2	8	7	9	1	9
8	1	9	9	6	8	2	7	1
2	9	7	1	1	9	6	8	8
6	7	8	1	9	9	8	1	2
1	8	1	8	2	6	9	9	7
9	2	9	7	1	8	8	6	1

9	8	2	8	1	1	9	6	7
1	7	1	8	9	6	2	9	8
8	6	9	2	7	9	8	1	1
7	1	9	1	6	9	8	2	8
8	8	1	9	2	7	1	9	6
2	9	6	1	8	8	1	7	9
9	9	8	7	1	8	6	1	2
1	1	7	6	8	2	9	8	9
6	2	8	9	1	7	8	1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조선소·기자재 기업 상생발전 도모



해남군청. /해남군

해남군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해남군은 오는 8월 8~9일 2024년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한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는 1994년 해운대구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2000년부터 매년 해남군과 해운대구에서 번갈아 열고 있다. 올해 캠프는 해남군 주관으로 8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해남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이 참가할 수 있으며, 명량해상케이블카와 공룡박물관, 모노레일 탑승, 땅굴전망대 등지에서 영호남 청소년들의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기장군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

기장군은 '2024년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가 오는 20일 일광해수욕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는 평생학습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 수강생과 재능나눔 봉사단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행사다. 올해는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되며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일광해수욕장에서 첫 공연이 열린다. 행사에는 통기타, 무용, 난타 등 5개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재능나눔 공연이 펼쳐지며 마술, 댄스 등의 초청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중소기술정보진흥원 영남 중소기업 대상 투자자금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TIPA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중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TIPA는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하고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추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조선산업 현안논의 간담회 BNK부산은행, 지역기업 위해 3000억 금융지원 상품 출시

부산시와 조선업계, 금융계가 모여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조선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형 조선사, 조선기자재 기업, 지역 상공계 대표와 부산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방성빈 BN



부산시는 지난 16일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조선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K부산은행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 대표들은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이 상생 협력을 이뤄 조선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다. 박 시장은 참석 대표들에게 지역 조선산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소개하면서, 조선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대형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이 소개한 시책들로는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개최 지원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사업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있다. 방성빈BNK부산은행장은지역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상품을 출시해 지역 조선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지역 금융기업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선기자재 기업을 대표해 중대형 조선소 대표들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조선기자재 기업 부설연구소의 집적화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연구개발(R&D)클러스터 센터' 건립 후분양시 중대형 조선소의 적극적인 입주 검토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24) 개최에 따른 중대형 조선소의 부스 참가 적극 검토 ▲조선기자재 공동납품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조선소의 구축 플랫폼 사용, 납기정보 공유 등 공동납품 지원 활성화 등 총 3건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조선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이 상생 협력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울산 스마트도시' 추진율 50% 돌파 포스코포항제철소, 여름나기 지원활동

2026년까지 7대 분야 36개 사업 예산 1593억 확보... 총 사업비 54% 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지능형(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이 순항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 일상 구현과 효율적인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에 나섰다. '울산 스마트도시계획'은 '시민 체감형 미래도시, 스마트 울산' 구현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교통, 환경, 안전, 산업 등 7대 분야 36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0.7%의 추진율을 기록

했다. 또 사업부서에서 확보한 예산도 총 사업비의 54%인 1593억원으로 파악돼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능형 드론 안심지킴이 ▲화학공단 주변 실시간 관측 ▲지능형 도시 데이터 허브 ▲디지털 집현전(다모아울산) 등 7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 운영 중이다. 또 ▲지능형 주차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능형 교통안전 ▲지능형 버스정류장 ▲데이터 기반 에너지 통합관리 ▲인공지능(AI) 기반 독거노인 돌봄비 ▲지능형 관광 ▲지능형 공원 ▲지능형 친환경 산단 통합관제센터 등 21개 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 정상 추진 중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점심특식, 격려간식 등 제공 포스코포항제철소(소장 천시열)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여름나기'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철소 작업 특성상 옥외 수리현장과 고온 개소가 많아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복삼계탕, 물회 등 다양한 보양 점심특식을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 또한 휴서기 기간 동안 제철소장은 팔빙수와 토스트 등 격려 간식을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작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푸드트럭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15일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포항제철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보양 점심특식을 직원들이 배식 받고 있다. /포항(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부터 '찾아가는 안전버스'가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하여 옥외 및 고열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 작업자 휴게시간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들은 안전버스 안에서 시원한 물과 식염포도당 등 충분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포항(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여자 야구대회, 울진 경제 활성화 기여

전국서 1000여명 방문 경북 울진군에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2024 전국 여자 야구대회'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회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방문해 울진 죽변면 일대의 음식, 관광, 숙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울진군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행정지원과 함께 잘 갖춰진 체육시설 인프라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해 울진을 방문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슌, 울진'에서 개최된 2024 전국 여자 야구대회에는 전국에서 37개팀,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총 37경기를 치렀다. /울진(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경북도, 대구시에 통합법률안 제안

통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 담야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대구시에 제안해 현재 시도 통합추진단이 공동안을 마련하고자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제안한 통합법률안은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

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 등을 담고 있다. 도가 제시한 '미래 대한민국 통합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 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김상복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실리콘밸리 거물들, 당선 가능성 큰 트럼프에 기부 ▲이란 정부, '트럼프 암살 기도' 부인 /사진 뉴시스

▲트럼프 피격에 바이든 "총기 규제 강화해야" ▲방콕 호텔에서 외국인 6명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



▲이스라엘, 가자 '인도주의 구역' 공습... 최소 60명 사망 ▲美, CIA 출신 대북전문가 '한국 정부 대리 혐의' 기소 /사진 뉴시스



DJ 풀파티에
요트체험까지
호캉스 레벨업
니



Life

세븐브로이
위스키 제조로
재기 도모
L2



폐기물 줄이고, 친환경기술 키우고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에 29억 투입

기후 대응 혁신기술, 녹색기업 발굴
분리배출 강화 등 폐기물 집중감량
커피박, 폐봉제 원단 수거해 재활용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저감과 녹색산업
양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현에 박
차를 가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 29억
2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혁신적인 녹
색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 단계별 역
량 강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는 구
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혁신 창업기업 발굴 ▲교육·컨
설팅 ▲시제품 제작·기업평가 지원 ▲
온라인 판매전 ▲투자상담회에 나선다.

혁신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
기업 창업펀드’도 조성해 운영한다. 조
성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시가 20억
원을 출자한다. 시는 펀드 운용사 공모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 10월부터
조합 결성·운용에 들어간다.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 발굴을 위
한 실증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실증 장
소와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급하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열린 강남 그린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분리수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예산지원형’과 실증 공간만을 제공하
는 ‘비예산지원형’으로 나눠 수혜 대상
을 선정,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증
을 실시한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도 추
진한다.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확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축으로 오는 2026년 직매입 금지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에 안
내문을 발송해 178곳(38.2t/일)을 자체
처리로 전환하고, 698개소를 점검해 대

상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관악구 등 4개구에서는 하루 3t의 폐
비닐을 열분해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
고 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상업시설 대상 감축 방안
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포, 양천구를 포함 서울시내 15개
구 3295개 매장에서 커피박(일 11.5
t)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10개
자치구에서 하루 32.4t의 폐봉제 원단
을 재활용하고, 중랑물센터 내 전용 집
하장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
였다. /김현진 기자 hjk1@metroseoul.co.kr

교권침해 여전... 10건 중 1건 ‘상해·폭행’

지난해 피해 5050건... 4년새 2배↑
피해교사 병가·휴직 3년새 9배 급증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
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
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
건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2662
건이던 2020년보다 4년 새 2배가량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특히 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하고 심
각해져 교사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
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
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 급증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
지면서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
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
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
하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특별
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
택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교원
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
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
악성 학교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등이 담
겼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공공예금 이자수익 73억 달성

‘이자수익 올리고 실무협의체’ 효과
체계적 관리로 전년 대비 17% 증가

파주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73억원을 달성했다고 발
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63
억원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이 성과는 회계과, 징수과, 예산법무
과와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협력하
여 ‘이자수익 올리고(GO) 실무협의체’
를 운영한 결과이다. 이 협의체는 세
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 금리 변동
에 대한 분석, 유휴 자금의 체계적 관리

를 통해 이자수익을 크게 증대시켰다.
시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저금리 예금
을 줄이고, 6개월 이상의 중장기 고금
리 예금의 비중을 확대하여 2024년 연
간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앞으
로도 1억원 이상 고액 지출 사전협의제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자
금 관리를 통해 유휴 자금은 최소화하
고 이자수익은 최대화하여 세입 확충
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학교현장 변화 위해 교권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교육감, 순직교사 1주기 추모
보호 5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도 낮아
정서적 아동학대, 정확한 규정 필요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
정됐지만 현장 체감도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
요하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순
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현장과 정책
의 간극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제정을 제안한 ‘학생맞
춤통합지원법’은 교사가 정서행동장애
나 위기 학생 등을 긴급할 경우 물리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으로 제지하고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정서행동
장애·위기 학생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
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개정 필요성을 제
기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
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안전법’ 역시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
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해
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
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입단... ‘꿈 이
뤘다’ /사진 뉴스1
▲ 황희찬에 ‘재키친’... 인종차별 구단
해명 논란

▲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9.5
만명... ‘역대 최다’
▲ 재런 두란, 보스턴 선수로 16년만에
MVP



▲ ‘서울라면’ 먹고 ‘서울달’ 타자... 티켓
증정 이벤트
▲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 됐다
/사진 뉴스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I에 바라는 게 있나요?

"세상의 모든 질병,
거침없이 날려버려!"

LG의 SI기술은
건강한 삶 속에서 모두가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SI연구로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이주영 선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